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일시 2011년 8월 31일(수) 오전 9:00-12: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일시: 2011년 8월 31일 (수) 오전 9:00~12: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사회: 박명규 (IPUS 원장)

9:00~등록

9:30~10:20 1부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 발표 1 조사의 배경 및 설계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발표 2 북한주민의 통일인식과 남한사회 적응실태 정은미 (IPUS 선임연구원)
- 발표 3 북한사회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최경희 (IPUS 객원연구원)

10:20~12:00 2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남북관계

- 토론 김근식 (경남대)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재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윤인진 (고려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진욱 (통일연구원)
김병로 (IPUS)

4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CONTENTS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1부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07 발표 1

2008 ~ 2011 새터민의식조사 : 개요 및 설계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17 발표 2

북한주민의 '갈망(渴望)'적 통일인식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정은미 (IPUS 선임연구원)

49 발표 3

북한사회 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최경희 (IPUS 객원연구원)

2부 : 북한주민의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토 론

79 김근식 (경남대)

81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재단)

85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88 윤인진 (고려대)

90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91 최진욱 (통일연구원)

92 김병로 (IPUS)



6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1부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 1

2008 ~ 2011 새터민의식조사 : 개요 및 설계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새터민의 의식조사를 2008년 7월과 2009년 10월 2회에 걸쳐 하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2010년에는 하나원방문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2010년과 2011년 입국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 대남인식, 북한사회실태변화, 그리고 남한적응실태 분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의식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실태, 대남인식,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국내 적응실태 등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새터민들의 의식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조사를 통하여 새터민의식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패턴을 탐구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원의 새터민의식조사는 “남북통합지수”를 산출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넷째, 본 조사의 결과는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국민의 통일의식과 국내외 탈북자 통일의식을 비교함으로써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을 전망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를 계기로 향후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지역의 탈북자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2011년의 의식조사는 기존 2년(2008년-2009년)간 수행된 탈북자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향후 해마다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학술 및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샘플링의 변화에 따라 설문 문항도 수정 및 추가하였다. 특히, 남북한 적응실태에 대한 문항은 2011년 조사에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이다. 설문 문항의 수정 및 추가는 통일의식조사(2007-2010년)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통일인식과 국내외 탈북자 통일인식의 비교분석을 위해 시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탈북자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2011년에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2년 연구조사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성별·연령별·탈북시기별 분포

세 번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그간 여성탈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84%, 71%, 그리고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새터민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새터민지원정책의 수립 및 실행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표 5] 응답자의 성별분포

	2008	2009	2011
남자	47	91	40
여자	249	262	74
무응답		17	
합계	296	370	114

<표 2>는 응답자들의 연령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의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의 연령들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다. 2011년에는 50대와 60대 이상이라는 응답자들도 많았다.¹⁾ 이러한 응답자의 분포는 이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하면 여성 탈북자 및 노년층 탈북자의 사회 적응문제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응답자의 연령별분포

	2008	2009	2011
50대 이상	16	31	27
40대	58	82	17
30대	112	120	30
20대	84	111	39
10대	12	2	1
무응답	14	24	
합계	296	370	114

1) 향후 탈북자들의 전수조사결과를 통해서 비교분석이 가능해지겠지만, 앞으로 가족탈북과 개별탈북 현상의 변화와 이들의 사회적응실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0%가 북한을 탈북한지 5년 미만이었다. 즉, 나머지 약 50%는 북한을 떠난 지 5년 이상이 지난 탈북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북한에 사회 및 통일에 대한 의식이 최근의 북한 내 주민들의 의식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평화연구원은 2011년 조사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한국사회로 탈북한 주민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표 3>의 2011년 데이터는 2010년과 2011년에 입국한 응답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 중 2010년 탈북자는 103명이다.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첫째의 응답이 이듬해, 그리고 5년 후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인 패널연구가 이뤄진다면 탈북현상 및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남북사회통합의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표 7] 탈북시기(입국시기)별 분포

2008		2009		2011
200년 이전	54	2000년 이전	78	
2001-2004	87	2001-2005	94	
2005-2008	142	2005-2009	175	
2010				95
2011				19
무응답	13		23	
합계	296		370	114

3. 북한에서의 출신지·학력·직업별 분포

응답자의 출신지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함경북도 출신 응답자가 세 번의 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함경북도 출신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양강도 출신이 많았다. 이는 탈북 및 이동 경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리적 편차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역사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표 8] 출신지별 응답자 분포

	2008	2009	2011
평양	4	8	1
개성	0	3	
남포	1	0	
평안남도	8	7	6
평안북도	7	5	
함경남도	30	32	5
함경북도	181	258	60
자강도	4	1	
양강도	29	22	41
황해남도	5	4	
황해북도	5	4	1
강원도	9	9	
무응답	13	17	
합계	296	370	114

조사대상자들의 다수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이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15%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약 43%를 차지하였다. 즉 2010년과 2011년 6월까지 탈북·입국한 북한주민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들 고학력자들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들의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9] 학력별 분포

	2008	2009	2011
대학교	17	29	12
전문학교	27	33	25
고등중학교	223	287	76
인민학교	16	15	1
무응답	13	6	
합계	296	370	114



응답자 중 노동자 비율이 제일 높았다. <표 6>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는 45%와 46%를 차지했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약 30%로 줄어들었다. 농민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원은 각각 7%, 5%, 13%였다. 전문가들도 2008년 4%, 2009년 6%에서, 2011년에는 8%로 증가했다.

[표 10] 직업별 응답자 분포

	2008	2009	2011
노동자	130	167	34
농민	32	30	9
사무원	20	18	14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10	21	9
학생	11	24	7
군인	13	14	6
외화벌이 일꾼	7	1	1
장사	17	13	12
주부	19	32	11
기타	21	28	3
무응답	16	22	8
합계	296	370	114

4.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분포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 비공식 수입이 10,000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공식 월급이 10,000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다. 비공식 수입에 대한 무응답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즉 많은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경제수입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은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



[표 11] 북한에서의 공식 월급과 비공식 수입 : 2008, 2009

	공식 월급		비공식 수입	
	2008	2009	2008	2009
100원 이하	65	86	13	55
100원 ~ 1,000원	36	39	22	14
1,000원 ~ 10,000원	39	93	28	28
10,000원 이상	5	7	42	70
무응답	151	145	191	203
합계	296	370	296	370

2011년 조사에서는 공식월급 및 비공식 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을 수정하였다. <표 8>이 보여주듯이, 공식 월급을 세분화하였고, 비공식 수입의 구간은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만원 이하의 공식월급을 받은 반면 10만원 이하의 공식월급 소득자가 7명, 10만원 초과 월급 소득자가 3명이나 되었다. 한편 비공식 수입에서도 10만원 이상 소득자가 26명이나 되었으며, 이들 중 50만원 초과 소득자는 8명이나 되었다. 역시 비공식 월급에 대한 가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표 12] 북한에서의 공식 월급과 비공식 수입: 2011

	공식 월급		비공식 수입
0원	30	0원	20
천원이하	14	만원이하	20
1천원 이하	22	10만원 이하	23
5천원 이하	12	50만원 이하	18
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4
10만원이하	7	100만원 초과	4
10만원 초과	3		
무응답	24	무응답	25
합계	114	합계	114

약 65%가 넘는 응답자들이 장사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

민, 공무원,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장사경험의 유무

	2008	2009	2011
있다	168	206	79
없다	112	154	31
무응답	16	10	4
합계	296	370	114

5.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친척의 유무

〈표 10〉은 약 70% 정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듯이, 예전에는 인적왕래에 의한 소식전달이 주를 이루었었지만 근래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소식전달 현상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4]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	2009	2011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	46	19
조금 접할 수 있다.	156	183	62
거의 접할 수 없다.	86	122	30
무응답	9	19	3
합계	296	370	114

많은 응답자들이 남한에 친척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응답자들의 약 30%와 40%가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하였으며, 2011년 조사에서는 56%가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의 표본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15] 남한친척의 존재여부

	2008	2009	2011
있다	88	145	65
없다	196	215	45
무응답	12	10	3
합계	296	370	114

2011년에는 혼인여부도 조사하였다. 114명의 응답자 중 60명이 미혼이었으며 48명이 기혼자였다. 응답자들의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31명, 자녀수 2명인 경우 19명, 자녀수 3명인 경우 6명, 자녀수 4명인 경우는 4명이었다.

6. 맺음말

2008년, 2009년의 조사와 2011년의 조사는 표본모집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표본모집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도, 응답자 분포별로 보면, 지속적인 현상과 변화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변수분포의 지속과 변화를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설문문항을 분석한다면, 세 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학술·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발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터민 인식조사는 패널연구가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비용과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일회성 인식조사에 그치기보다 표본의 확장과 동시에 기본 표본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인식조사가 수행된다면 비교연구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 관련 기초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정책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부 지원 및 학계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1부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 2

북한주민의 '갈망(渴望)'적 통일인식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정은미 (IPUS 선임연구원)





I. 설문 구성과 변화

통일인식과 관련된 설문 구성은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통일 및 남한인식'과 '사회문화 부문' 범주에 분산되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은 '통일 및 남한인식' 범주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기, 남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간의 차이,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과 느낌 등의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문화 부문'에는 통일 후 자녀교육, 통일 후 거주지역, 통일 후 지역평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통일인식 관련 설문 문항들을 '통일인식' 범주로 통합하고, '대남인식'과 '남한사회 적응실태'의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 기존 설문 문항들을 재분류하거나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설문 구성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표1>과 같다.

2008년과 2009년에 통일인식 범주로 분류되었던 설문 문항들 중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한 간의 차이,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과 느낌은 2011년 조사에서는 '대남인식'으로 분류되었고, 통일 이후 자녀교육과 통일 이후 지역평등 문항은 2011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2011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염원도, 통일이 북한전체와 북한주민 개인에게 주는 이익, 통일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여부,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의 화합 정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공통으로 계속 유지된 설문 문항은 세 개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 예상 시기, 통일 이후 거주지역이다.

이 글은 먼저 세 차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한 후, 문항간 교차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따라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른 응답분포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통일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설문 결과가 '압도적'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배경변수별 응답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응답률이 남자는 9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자는 9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남자와 여자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이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99%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전문학교 응답자의 100%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압도적'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응답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대신에 문항간 교차분석을 통해 통일인식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설문 문항이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글은 2011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적응실태를 분석한다. 설문 문항은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남한에서의 자아관과 사회관계, 경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과 2009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은 하지 않았고 배경변수별, 문항간 교차분석을 하여 통일준비 차원에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통일인식의 문항간 교차분석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터민의 남한사회적응 실태, 특히 남한사회의 포용성과 자기인식(또는 자기 정체성) 문항은 통일인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통일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표 1] 조사 연도별 통일인식 관련 설문 구성의 변화

	2008년	2009년	2011년
통일의 필요성	○	○	○
통일의 염원도	×	×	○
통일 예상 시기	○	○	○
통일이 북한전체에 주는 이익	×	×	○
통일이 북한주민 개인에 주는 이익	×	×	○
대북정책 별 통일 기여도	×	×	○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	×	○



	2008년	2009년	2011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화합	×	×	○
통일 이후 거주 지역	○	○	○
통일 이후 자녀교육	○	○	×
통일 이후 지역평등	○	○	×
남한에 대한 인식	○	○	△
남북한의 이질성	○	○	△
남한 문화 접촉 경험	○	○	△
남한 문화에 대한 친숙성	○	○	△

○ : 포함, × : 미포함, △ : 분류 범주 변경

II. 설문 문항별 분석

1. 통일인식

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염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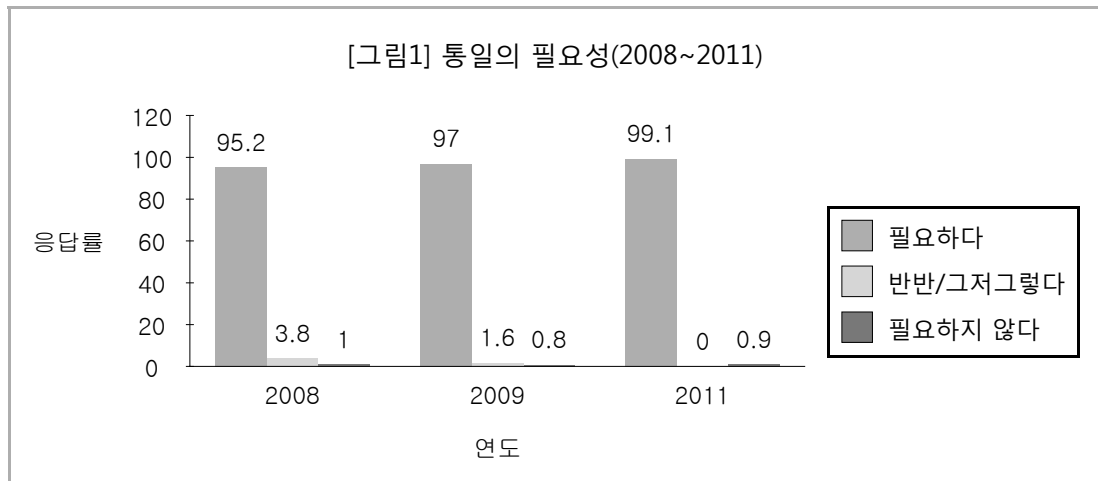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느냐는 질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1>에서 나타나듯 2008년 95.2%→2009년 97%→2011년 99.1%로 북한주민 절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동일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 51.6%→2009년 55.8%→2010년 5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¹⁾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말 그대로 목마르게 바라는 '갈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8~2010) 각해년도.



특히, 2011년의 조사의 응답집단은 2010년 1월 이후 탈북한 북한주민들로서 탈북연도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률의 변화는 표집방법의 변경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조사에는 속칭 ‘직행 탈북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3국을 체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매우 짧은 시기를 체류했으며, 비교적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일부가 이미 탈북하여 먼저 한국에 사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이 통일인식에서 좀더 통일지향적 태도를 갖는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의 염원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은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로 규범적 응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11년 조사부터는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북한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도는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이듯,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응답률은 ‘매우 원한다’ 91.2%와 ‘약간 원한다’ 8.0%를 합하여 98.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99.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표 2] 통일에 대한 염원 정도(2011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08	91.2
약간 원한다.	4	8.0
별로 원하지 않는다.	1	0.9
전혀 원하지 않는다.	0	0.0
합계	113 (결측=1)	100

2) 통일 시기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3>에서 보이듯, 2008년 36.9%→2009년 49.7%→2011년 31.0%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08년 28.3%→2009년 13.8%→2011년 26.5%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08년 12.5%→2009년 18.1%→2011년 19.5%로 계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북한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서 현실 탈출의 관점에서 단기간 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 질문에 대해 남한 주민의 경우 역시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높게 나타나,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에서의 공통성을 발견되기도 한다.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이 2008년 22.1%(3위)→2009년 27.6%(1위), 2010년 24.1%(1위)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08년 22.3%(2위)→2009년 19.8%(2위)→2010년 20.6%(3위)로 나타났는데, 남한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 주장이 대두되면서 단기간 내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²⁾

2)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8~2010) 각해년도.



[표 3] 통일 시기(2008~2011)

	5년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2008	12.5	36.9	15.1	2.2	5.0	28.3
2009	18.1	49.7	11.6	1.4	3.2	13.8
2011	19.5	31.0	13.3	2.7	7.1	26.5

3) 통일의 이익 기대감

(1) 북한 전체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2011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놀랍게도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표4>에서 보이듯 100%로 나타났다. 2010년 남한 주민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53.5%로 나타나,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일 이익 기대감에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 이러한 격차의 발생은 북한 주민의 경우 북한이 현재 처해진 경제상황이 매우 나빠기 때문에 통일이 반드시 북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남한 주민의 경우는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이 부담해야 할 몫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통일이 북한 전체에 주는 이익 (2011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04	91.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10	8.8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합계	114 (결측=0)	100

3)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2) 북한 주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위에서 통일이 북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0%였는데 반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표5>에 나타나듯 95.6%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남한 주민의 응답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남한 주민의 경우 2010년 조사에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4.8%,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2%로 매우 대조적인 모습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 간에 나타난 대조적인 현상은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을 자신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로 보는 반면에,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경제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통일이 북한주민 자신에게 주는 이익(2011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90	78.9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19	16.7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3.5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0.9
합계	114 (결측=0)	100

3) 통일 사회에 대한 기대인식

(1)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개선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 주민은 경제와 관련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6>에서 보듯,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8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빈부격차 82.8%, 부동산 투기 68.4%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갈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



답은 5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은 현재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대부분의 산업가동이 멈추거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어 대부분이 반실업자(직장 소속은 그대로 되둔 채 대신 장사를 하고 있음)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통일이 되면 실업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회문제로는 지역갈등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죄문제 28.5%, 이념갈등 26.9%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역시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지역적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일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의 경우 2010년 조사에서 사회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률이 빈부격차 15.9%, 부동산투기 19.8%, 실업문제 26%, 범죄문제 9.1%, 지역갈등 13.1%, 이념갈등 16.4%로 나타나, 남한주민의 역시 실업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현재 실업자나 마찬가지로인 북한 주민에게는 통일이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는 기회로, 남한 주민에게는 통일로 인한 북한지역의 개발붐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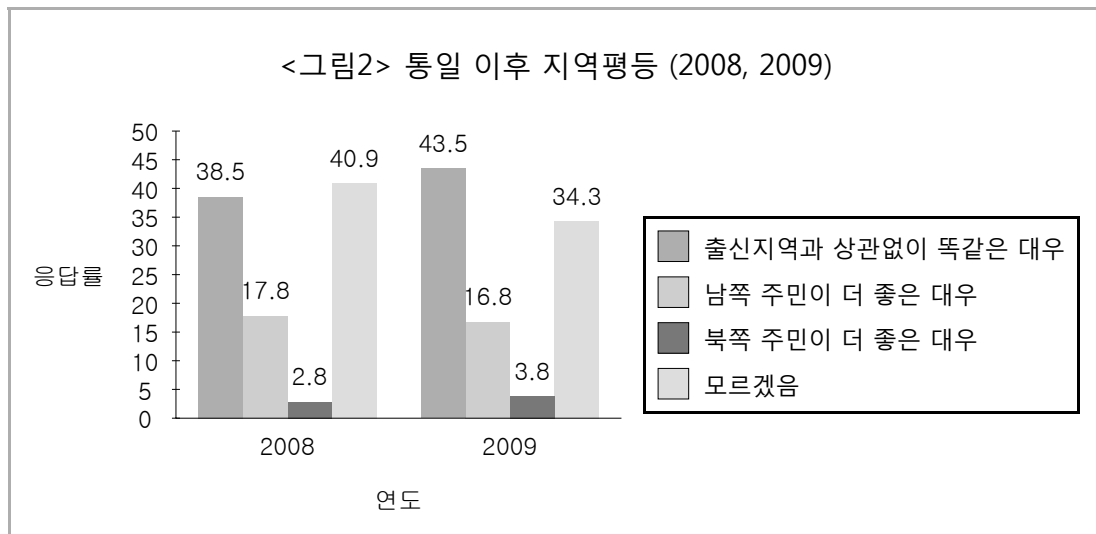
[표 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2011년)

	개선됨	차이없음	악화됨
빈부격차	82.8	4.8	12.4
부동산투기	68.4	11.2	19.4
실업문제	86.4	1.9	10.7
범죄문제	55.8	14.7	28.5
지역갈등	51.5	11.9	35.7
이념갈등	62.7	9.6	26.9



(2) 통일 이후의 지역평등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높은 통일지향적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주민은 통일 이후 지역적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에서 보이듯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2008년 38.5%, 2009년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역으로 절반 이상의 북한주민이 통일 이후 지역평등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 역시 통일 이후 지역적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008년 40.9%, 2009년 3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일 이후 지역평등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나 아직 남한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하나원 입소자들이기 때문에 견해를 유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회담 등과 같은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7>과 같이 대북정책 중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률(8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협력 79.8%→정기적인 남북회담 77.8%→인도적 대북지원 70.2% 순서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북정책 중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일 기여도는 2008년 51.8%→2009년 54.0%→2010년 52.3%였다.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회의적인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표 기]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201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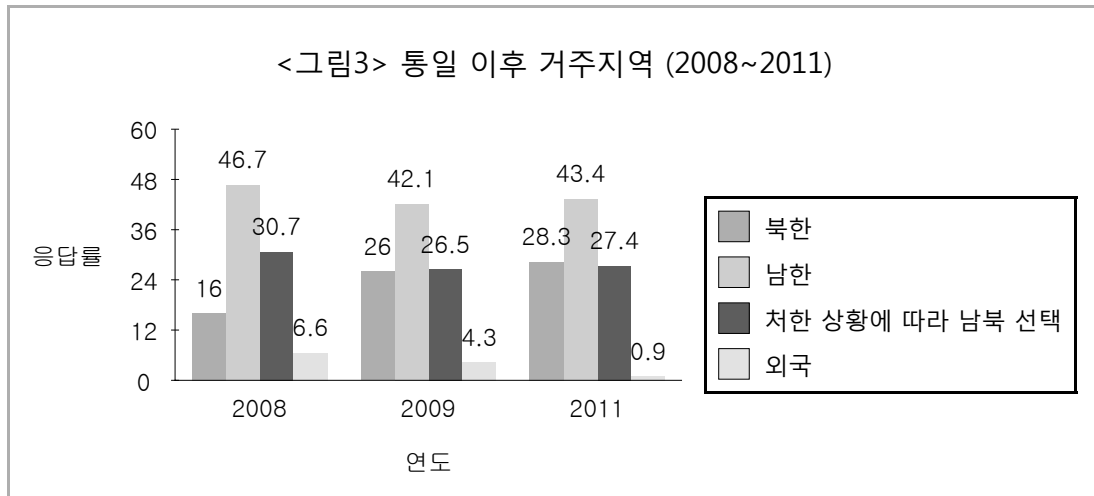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인도적 대북지원	58.8	11.4	21.9	7.9
사회문화교류	52.3	31.8	13.1	2.8
경제협력	54.1	25.7	13.8	6.4
남북회담	51.9	25.9	17.6	4.6

5) 통일 이후 사회통합

(1) 통일 이후의 거주 지역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 남한지역, 남북한 어느 곳이든, 외국 중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할 생각이나는 질문에 남한지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남한지역을 선택한 응답률은 <그림3>에서 보이듯 2008년 46.7%→2009년 42.1%→2011년 43.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이 되면 대규모 북쪽 인구의 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어느 쪽도 아닌 외국을 선택하는 응답비율은 빠르게 줄어들어 2008년 6.6%→2009년 4.3%→2011년 0.9%로 나타났다. 2011년에 현격히 낮은 것은 설문 표본이 '직행 탈북자'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남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남북한 주민의 화합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위에서 통일 이후 지역평등이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북한주민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을 통해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통일 이후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새터민의 응답 태도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화합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표8>에 나타나듯,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이 매우 또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은 81.3%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18.8%에 비해 매우 압도적인 결과이다. 심지어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북한 주민에게 나타난 통일 이후의 지역평등이나 지역갈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컸던 데 반해 의외의 결과이다.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의 지역평등이나 지역갈등 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통일 이후의 화합에 대해서는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통일 이후 남북화합(2011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42	37.5
그럭저럭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49	43.8
별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21	18.8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0	0
합계	112 (결측=4)	100

2. 남한사회 적응실태

1)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1) 남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우선, 새터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새터민들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로 대답하였다. <표 9>는 남한주민에 대한 새터민들의 친근감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50	44.2	44.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54	47.8	92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9	8	100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	0	100
합계	113	100	결측=1



새터민들은 남한주민들을 대체적으로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가 남한주민이 매우 혹은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8%인 9명이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은 없었다.

이 결과를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남한주민의 반응과 대조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 남한주민은 42.5%만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하였으며, 50.8%는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도 6.7%나 되었다.⁴⁾ 샘플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새터민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남한주민들에 대해 더 강한 민족적 친근감을 지니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⁵⁾

반면, 아홉명의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응답자 중 2명은 남성이며 7명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20대 4명, 30대 3명, 그리고 50대와 60대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의 학력은 전문학교 혹은 고등중학교 출신이며, 모두 비당원들이다. 이들 중 6명은 장사의 경험이 있으며, 혼인여부(미혼: 5명, 결혼: 4명)와 남한에 친척의 존재 여부(있다: 5명, 없다: 4명)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2)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

새터민들이 느끼는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새터민들은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또는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조사결과는 <표10>이 보여주고 있다.

4)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이상신, 박정란, 정은미, 2010, 통일의식조사 201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p. 100-01.

5) 조사대상이 2010년과 2011년에 입국한 새터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인식은 입국초기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별도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표 10]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포용의 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포용적이다.	30	26.5	26.5
약간 포용적이다.	54	47.8	74.3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28	24.8	99.1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1	0.9	100
합계	113	100	결측=1

남한주민들이 탈북자에 대해 포용적이다라고 대답한 새터민들은 응답자의 74.3%이다. 응답자의 24.8%인 28명은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였으며, 0.9%인 1명은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⁶⁾ 앞의 질문에서 응답자의 92%가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고 하였다. 즉, 친근감을 느끼는 새터민들의 입장과 남한주민들의 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새터민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표 11〉에 나타나듯이,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했던 50명 중 5명이 남한주민이 탈북주민에 대해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하였고, 남한주민에 대해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했던 54명 중 19명이 남한주민이 탈북주민에 대해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1명이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던 9명 중 3명은 남한주민들이 매우 포용적이다라고 했고, 2명이 약간 포용적이다라 고하였다. 이는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가 새터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동질감과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20대이며, 전문직 직종에 종사했고 장사의 경험도 있었다. 현재 남한에 친척이 있으며, 북한 소식도 꾸준히 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빈도)

	매우 친근하다.	다소 친근하다.	별로 친근하지 않다.	전체
매우 포용적이다.	21	6	3	30
약간 포용적이다.	24	28	2	54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5	19	4	28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	0	1	0	1
전체	50	54	9	113

혹은 30대이며, 전문학교 학력 소지자가 20.8%, 고등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28.9%이다. 노동자, 농민, 전문가 출신의 새터민들이 남한주민들이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들 중 22명은 북한소식을 접하고 지내고 있었다.

2) 남한에서의 자아관 및 사회관계

(1) 남한에서의 자아인식

새터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남한사회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으로, 이 연구조사는 새터민들에게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거주지역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향을 떠났더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귀향하려한다는 가설을 통해, 새터민들이 정착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2>는 새터민들의 자기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남한에서 탈북주민의 자아인식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나는 남한사람이다.	83	72.8	72.8
나는 북한사람이다.	25	21.9	94.7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8	5.3	100
합계	114	100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2.8%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1.9%는 북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새터민들은 50%만이 자신을 남한사람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농민, 전문가, 군인, 그리고 주부들은 약 55%정도만 자신을 남한사람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모두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학교에서의 사회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82%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 생각하였다.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평균미만인 66.7%만이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남한사람에 대해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55.5%인 5명이 자신을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남한사람들이 매우 포용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 86.7%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약간 포용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 70.3%가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64.2%만이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 25명 중에 남한주민에 대해 대체적으로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이 23명이다. 반면, 남한주민들이 탈북주민들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대답하면서 북한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5명 중 16명이다. 이는 민족적 동질성과 통일의 규범적 당위성만으로는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사회가 포용적이지 않을 때 새터민들은 자신들을 북한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탈북주민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인식의 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 남한에서의 사회관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므로 이 연구조사는 새터민들에게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평소에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깝게 어울리며 지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3>에 보여주고 있다.

[표 13] 사회탈북주민의 관계 형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족 및 친척	40	41.2	41.2
직장이나 학교동료	18	18.6	59.8
탈북자	9	9.3	69.1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만난 사람들	23	23.7	92.8
동네이웃	2	2.1	94.8
기타	5	5.2	100
합계	97	100	결측=17

가족 및 친척과 평상시에 가장 가깝게 지낸다는 대답이 41.2%를 차지하였다. 새터민들은 종교나 시민단체에서 만난 사람들(23.7%)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동료들(18.6%)과도 평상시에 가깝게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탈북자 혹은 동네이웃들과 평상시 가깝게 지낸다는 대답은 10%미만이였다.⁷⁾ 북한에서의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직장이나 학교동료와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자 중에 노동자가 6명, 전문가가 3명, 농민이 2명, 사무원이 2명, 학생, 사업가, 주부가 각각 1명이였다. 동네이웃과 가까이 지낸다는 응답자는 농민과 학생 각각 1명이였다. 앞서 학생 9명 모두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학교동료 혹은 동네이웃과 평상시 가까이 지낸다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동료 혹은 동네이웃과 평상시 가까이 지낸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 보고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남한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새터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들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만난 사람들과 평상시 가깝게 지내는 비율이 64.9%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과반수에 가까운 남한주민들은 새터민을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는 꺼려지지 않으나, 사업동반자 혹은 결혼의 상대자로는 꺼려진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⁸⁾ 따라서, 초기에 정착한 새터민들

7)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17건이였다.

8)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201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p. 101-7.



은 직장이나 동네에서 제한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3) 남한에서의 취업 및 근로활동

(1) 취업형태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가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남북한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귀하의 현재 취업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표 14>는 응답자들의 취업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4] 탈북주민의 취업형태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규직근로자	27	26.2	26.2
계약직근로자	5	4.9	31.1
일용직근로자	11	10.7	41.7
고용자	2	1.9	43.7
자영업자	4	3.9	47.6
실업자	4	3.9	51.5
비경제활동인구	50	48.5	100
합계	103	100	결측=11

응답자의 47.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3.9%인 4명은 조사시점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였다.¹⁰⁾ 나머지 48.5%는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였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56%와 여성의 43.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5%인 27명이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였으며, 22.4%인 11명이 고용

9)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2010년과 2011년에 입국한 새터민들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0) 실업자 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입국시기별로 보면, 2010년 입국자들 중의 45.3%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2011년 입국자는 58.8%인 10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학력별 취업형태는 학력이 낮을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즉, 학력별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대학교(72.7%), 전문학교(64%), 그리고 고등중학교(44%) 순이다. 남한사회의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고학력 새터민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것은 새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북한에서 학생이었던 새터민들 중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명이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사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평균보다 높은 56.7%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았다.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취업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한에서의 장사경험이 본인의 직업활동 이외의 가계수입을 위한 생계형이었다면 남한사회에서 취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월평균 임금

남한에서의 월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에는 56명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¹¹⁾ 한편, 이 연구조사는 가계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¹²⁾ <표 15>는 새터민들의 월평균임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1) 취업형태에 대한 질문 대해 49명만이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직장이 없이 초청강연 등에 의한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취업형태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2) 향후 연구에서는 월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은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으로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주부 등의 소득은 다른 경제활동인구의 그것과 비교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 환경변수들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계소득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56명이었으며, 이들 중 34명(60.7%)이 100만원 이하의 월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있는 20대 응답자 17명 중 6명이 100만원 이상을 그리고 7명이 5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30대 응답자 17명 중 9명이 1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5명은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100만원 초과 임금을 받는 응답자 중 12명이 기혼자이며, 9명은 미혼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자녀수가 3명이상이라고 대답한 3명의 수입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표 15] 탈북주민의 월평균임금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0원	16	22.2	22.2
50만원 이하	18	25	47.2
100만원 이하	16	22.2	69.4
100만원 초과	22	19.3	100
합계	72	100	결측=42

또한 월평균임금은 남한에서의 취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는 1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 5명 중 2명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2명이 100만원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3명 중 2명이 100만원 초과 수입을 얻고 있다.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6] 취업형태에 따른 월평균임금 (빈도)

	0원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전체
정규직근로자	0	0	3	14	17
계약직근로자	0	1	2	2	5
일용직근로자	0	4	4	3	11
고용자	0	1	1	0	2
자영업자	0	1	0	2	3



	0원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전체
실업자	1	3	0	0	4
비경제활동인구	14	8	6	1	29
합계	15	18	16	21	71

반면,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대답했던 33명 중에서 18명은 소득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61%인 11명의 월평균수입은 50만원 미만이며, 100만원초과 수입을 얻는 사람은 1명이었다. 이들의 수입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장기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 및 시민단체의 경제적 지원 혹은 초청장연비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새터민들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도 경제활동 및 사회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새터민들의 근로환경은 그들의 취업형태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월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로환경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실태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설문조사결과는 <표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17]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0일	4	8.2	8.2	0일	4	7.3
10일이하	8	16.3	24.5	7시간이하	3	5.5
20일이하	10	20.4	44.9	9시간이하	27	49.1
20일초과	27	55.1	100	9시간초과	21	38.2
합계	49	100	결측=65	합계	55	100
						결측=59

응답자 중 27명이 20일초과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명의 평균 근로일수는 20일이하



였다. 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17명이 20일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를 취업형태별로 나누면, 정규직 응답자 중 12명, 일용직 응답자 9명 중 6명, 계약직 응답자 5명 중 4명이 다.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대답했던 새터민들 중에 근로일수를 10일이하, 20일이하, 20일초과라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2명, 4명, 3명이었다.¹³⁾ 고등중학교학력의 새터민들이 정규직을 얻은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그 결과 20일초과 근무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표 18〉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20일이 넘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월평균임금이 50만원 이하라고 답변한 사람도 4명이나 되고, 10일이하로 일하면서 1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20일 넘게 일해서 100만원이하를 버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20일 초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버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18] 근로일수와 월평균임금 (빈도)

	0원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합계
0일	4	0	0	0	4
10일이하	0	4	1	1	6
20일이하	1	3	2	1	7
20일초과	2	4	4	16	26
합계	7	11	7	18	43

새터민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평균 8시간이상 근로하고 있으며, 9시간초과 일하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21명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7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새터민은 3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노동자였던 새터민들은 18명 전원이 8시간이상 일한다고 하였으며, 가정주부였던 여성들도 응답자 5명 중 4명이 8시간이상 일한다고 하였다.

정규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17명 중 11명이 9시간이하, 6명은 9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계약직인 경우도 5명 중 3명이 9시간이하, 2명이 9시간초과라고 응답을 하였다. 일용직 근로자는 10명 중 8명이 하루근로시간이 9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17명 중 12명도 8시간이상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경제

13) 이는 경제활동과 근로일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활동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표 19] 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빈도)

	0원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전체
0시간	4	0	0	0	4
7시간이하	1	2	0	0	3
9시간이하	2	6	4	10	22
9시간초과	0	5	5	10	20
전체	7	13	9	20	49

〈표 19〉의 결과에 의하면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8시간이상 근무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새터민이 20명이지만, 100만원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들도 22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근로시간보다는 새터민들의 취업의 형태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 문항간 교차분석

1. 범주별 문항간 교차분석

새터민 의식조사는 크게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변화인식, 남한사회 적응 네 범주로 설문문이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제외한 통일인식과 상관성이 있는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주에서 몇 가지 설문 문항을 선별하여 통일인식 관련 문항과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통일의 필요성 문항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범주별 문항들과 카이검정(chi-square test)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표20〉과 같다.

세 차례의 조사결과 모두에서 교차분석을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문항은 한 개도 없었다. 다만 설문 구성이 변한 것을 감안했을 때 2009년과 2011년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문항은 통일 이후 거주지역이 유일하다.



[표 20] 통일의 필요성과 교차분석한 문항과 통계적 유의미성

범주	교차분석한 문항	통계적 유의미성		
		2008년	2009년	2011년
통일 인식	통일 예상 시기	-	**	-
	통일이 북한전체에 주는 이익	x	x	**
	통일이 북한주민 개인에 주는 이익	x	x	**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x	x	-/**
	통일 이후 남북주민 화합	x	x	-
	통일 이후 거주지역	-	**	**
대남 인식	남한에 대한 인식	-	**	-
	남한문화 접촉 경험	-	-	-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성	-	-	-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	-	-
북한 변화 인식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	-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	-	-
	북한정권의 유지 기간	-	-	-
	경제난의 원인	-	-	-
남한 사회 적응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x	x	-
	남한주민의 포용성	x	x	**
	자기 정체성	x	x	**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 통계적으로 유의미 않음
 x : 해당 문항이 없어 교차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 : 하위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과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 공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1>에서 보이듯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 거주 지역 간 교차분석을 한 결과 2009년 조사에서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343명 중에서 141명이 통일 이후에 남한지역을, 94명이 남북한 어디든, 93명이 북한지역을, 15명만이 외국을 선택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107명 가운데 통일 후 거주 지역을 46명이 남한지역을, 31명이 남북한 어디든, 30명이 북한 지역을 선택하였고, 외국에 나가 살겠다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는 북한주민이 통일을 갈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남한지역에서 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 거주지역 교차분석 결과(빈도)

통일후 거주지		통일의 필요성	통일 필요성				전체
			매우 필요	약간 필요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없다	
북한 지역	2009년	93	2	0	0	0	95
	2011년	30	0	2	0	0	32
남한 지역	2009년	141	9	4	1	0	155
	2011년	46	0	1	1	0	48
남북한 어디든	2009년	94	1	2	0	0	97
	2011년	31	0	0	0	0	31
외국	2009년	15	0	0	2	0	17
	2011년	0	0	1	0	0	1
전체	2009년	343	12	6	3	0	364
	2011년	107	0	4	1	0	112

2009년 : chi-square=37.5, df=16, p<0.001

2011년 : chi-square=30.4, df=6, p<0.001

이밖에도 흥미로운 점은 통일인식과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문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주요 사회문제 중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은 통일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문제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통일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1>에 나타나듯,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96명 가운데 통일 이후에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4명에 이른 반면에,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사실상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반실업자 상태에 있는 처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탈출욕구가 통일에 대한 열망에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실업문제 개선 간 교차분석 결과

실업문제 \ 통일 필요성	매우 필요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체
크게 개선	65	3	0	0	68
약간 개선	19	1	0	0	20
차이 없음	2	0	0	0	2
약간 악화	7	0	0	0	7
크게 악화	3	0	1	0	4
전체	96	4	1	0	101

(chi-square=24.3, df=10, p<0.001)

2. 통일인식과 남한사회 적응실태 교차분석

〈표20〉에서 나타나듯 통일의 필요성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항간 교차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범주의 문항들에 비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점을 주목해, 통일인식 관련 전체 문항과 남한사회 적응 문항간 교차분석을 다시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통일인식 문항과 남한사회 적응 문항 간에 비교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23〉에서 보이듯 새터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북한주민의 통일인식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터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통일 예상 시기 문항을 제외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이익 기대감(북한전체와 개인 모두),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화합, 통일 이후 거주지역 문항과 교차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 정체성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북한주민 개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의 화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남한주민이 새터민에게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새터민은 통일인식 전반에서도 매우 통일 지향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남한주민이 새터민에 대해 포용적이고 남한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새터민일 수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화합해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남한사람이 새터민에 포용적이라고 느끼



는 사람일수록 통일 이후에 남한에 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도 자기 정체성에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새터민이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새터민에 비해 전반적으로 통일인식에서도 통일 지향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일이 매우 필요하며, 통일이 북한주민 개인에게 매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새터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과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등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새터민 지원 및 정착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현재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이 어떤 이미지와 존재로 인식되게 하느냐가 통일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표 23] 통일인식 문항과 남한사회 적응 문항 간 교차분석과 통계적 유의미성

통일인식 \ 남한사회 적응	남한주민의 포용성	자기 정체성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통일의 필요성	**	**	-
통일의 이익(북한전체)	**	-	-
통일의 이익(주민개인)	**	**	-
통일 예상 시기	-	-	-
통일후 남북주민 화합	**	-	**
통일후 거주지역	**	-	-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IV. 결론

새터민 의식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은 한마디로 '갈망'의 통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력



쟁쟁'을 위해 생존의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보인다.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익에 대해 응답자 90%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응답 태도만을 봐서는 북한주민이 통일문제를 매우 당위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닌 가라는 선부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의 사회가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평등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 역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 많은 북한주민들은 통일 이후 지역갈등,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터민들은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보다는 남한지역에 살 것이라고 응답했고, 통일 이후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통일 이후에 잘 화합해서 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새터민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보다 새터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이 느끼기에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는 대답이 약 74%에 이른다. 하지만 친근감의 정도와 포용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양적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지만, 남한사회가 포용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답한 주민들이 약 24%에 이른다. 이는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정착초기 그들이 겪는 남한사회적응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한사람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대답한 새터민들이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정착초기 새터민들은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만난 사람들과 평상시 가깝게 지낸다고 하였다. 즉, 새터민들이 친근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을 때 이들은 지역사회로 동화되기 힘들다. 과반수가 넘는 남한주민들이 새터민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남한사회 내부에서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 중 47.6%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20일 이상 일하고 100만원초과의 월평균임금을 받는 확률이 높았다. 반면,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새터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사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새터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응답한 새터민들도 소득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조사방법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직장이 없이 정부지원 혹은 외부강연을 통한 소득을 의미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학력 소지자들의 경제활동이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는 남한사회 내 고학력자의 실업문제와 연관이 되며, 이들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단기 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은 현 남한사회와 미래의 통일한국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주요자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터민의 경제활동 형태에 대한 학술·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인식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항 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새터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과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등은 통일인식에서도 통일지향적인 태도를 갖는데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그리고 새터민 지원 및 정착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현재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을 어떤 이미지와 존재로 인식되게 하느냐가 통일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1부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 3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최경희(IPUS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 진행한 새터민 설문 조사결과를 소재로 북한사회의 현 실태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북한사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 설문조사 문항에 분포되었던 북한의 “정치, 군사부문”, “경제 부문”, “사회문화 부문”에 관한 일부 문항을 2011년 조사에서는 “북한실태 변화”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에 관한 질문과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인지도, “적정 월 소득”을 묻는 문항을 추가 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 “통일 및 대남인식”으로 분류되었던 남북 간의 차이와 남한 문화 접촉에 관한 항목은 2011년에는 “대남인식”으로 분류했다. 남북 간의 차이를 묻는 문항에는 남북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남북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추가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인지도에 대한 항목을 더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북한사회의 실태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사회 실태를 북한주민의 “북한사회 인지도”, “경제활동 인지도”, “개인생활의 태도”로 분석하고, “대남인식”에서는 “대남 존재인식”, “남한문화 접촉 경험과 친숙도”, “대남현실에 대한 인식”,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빈도수를 배경변수와 교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교차분석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PPT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2. 북한사회 실태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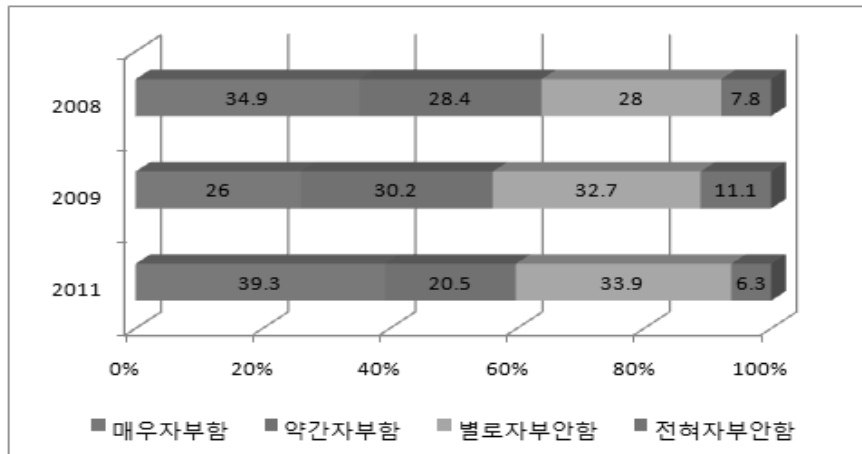
가. 북한 사회 인지도

1) 주체사상



북한주민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살펴본 결과 2008년과 2009년에는 매우 자부한다고 답한 주민이 34.9%와 26%로 나타났으며, 약간 자부한다고 답한 주민은 2008년 28.4%와 2009년 30.2%로, 별로 자부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2008년 28%와 2009년 32.7%로, 전혀 자부하지 않는다고 답한 주민은 2008년 7.8%와 2009년 11.1%로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1년에 들어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자부한다고 답한 주민이 39.3%로, 약간 자부한다고 답한 주민이 20.5%로 기존에 비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에 들어 주민에 대한 주체사상 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1] 주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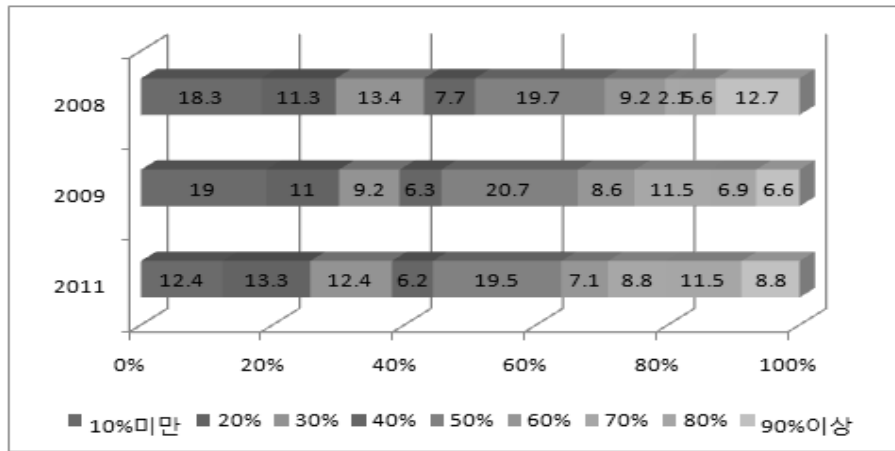


응답자 112명중 연령별로 보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7명이고, 그 중 20대가 24명, 30대가 20명 40대가 10명, 50,60대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20,30대(44명)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가장 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응답자 44명, 전졸 응답자 13명, 대졸응답자 9명순으로 고졸 응답자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북한의 교육시스템과 공식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2) 김정일 지지

다음으로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2008년과 2009년 50%이상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49.3%와 54.3%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들어 50%이상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55.7%로 나타났다.

[그림 1-2] 김정일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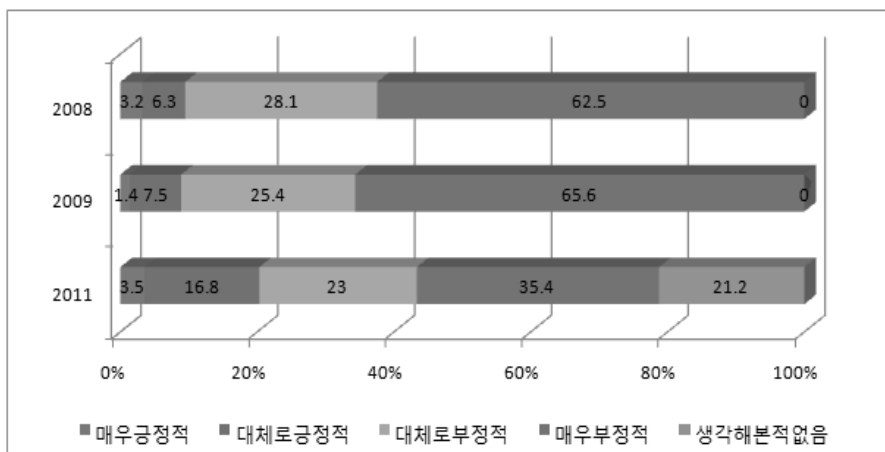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김정일 지지도를 50%이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63명이고, 그 중 20대이하 (21명), 30대이하(17명), 40대이하(11명), 60대이하(7명), 50대이하(6명)순으로 주체사상의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지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별로 보면 50%이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고졸 44명, 전졸13명, 대졸 6명으로 나타났다.

3) 권력 세습

권력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식조사를 살펴본 결과 2008년과 2009년 권력세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이 62.5%와 65.6%로 상당히 높은 수가 권력세습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 권력세습에 대한 주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35.4%로 약20%정도가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16.8%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3] 권력 세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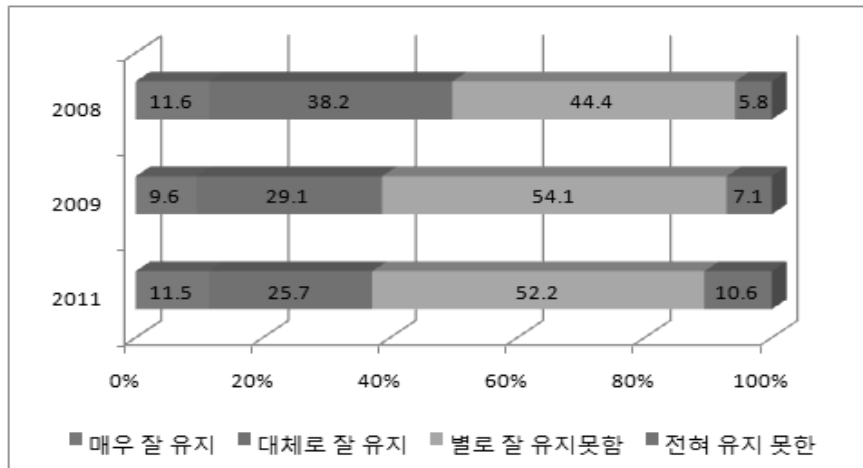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2011년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문항이 신설되면서 응답형태가 다양해져, 변화를 평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분명히 드러난 것은 권력세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08년(9.5%)과 09년(8.9%)에서 11년(20.3%)로 증가한 점이다.

이는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와 노동당 창건 61주년 행사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부터로 해석된다.

4) 사회통제력

북한사회 통제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08년(49.8%)과 09년(38.7%)에 비해 37.2%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잘 유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08년(50.2%)에서 09년(61.2%)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62.8%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4] 사회통제력



5) 정부비판

북한주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많이 비판한다고 답한 주민은 08년(11.1%), 09년(9.7%)에 비해 2011년에는 17%로 증가한 동시에 약간 비판한다고 답한 주민은 49.1%-48.9%-52.7%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비판한적 없다고 답

한 주민은 39.8%~41.4%~30.3%로 현저히 감소하여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림 1-5] 정부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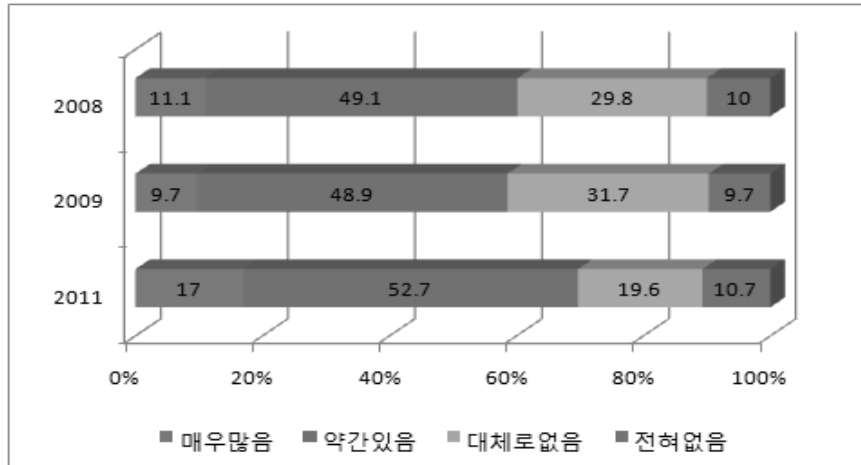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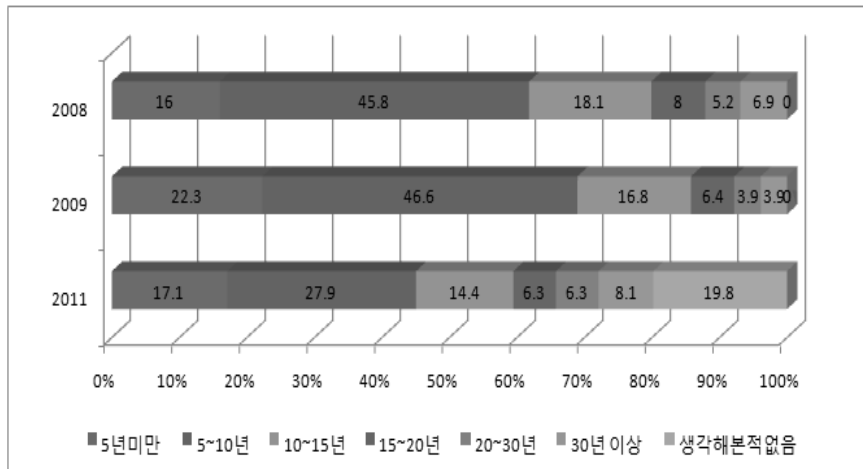
그림 1-5를 그림1-1,2,3을 비교해보면 이념적 지지도와 상반되는 북한 주민들의 양면적 태도를 감지 할 수 있다. 2011년에 들어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은 높아진 반면, 주체사상과 3대세습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특징적이다.

6) 체제유지

북한체제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살펴본 결과 5~10년이라고 답한 주민은 08년(45.8%), 2009년(46.6%)로 나타났으며, 10~15년이라고 답한 주민은 18.1%~16.8%로, 5년 미만은 16%~22.3%로 체제 유지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 5~1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주민이 27.9%로 급감하였다. 반면에 30년 이상으로 보는 주민은 08년(6.9%)과 09년(3.9%)에 비해 8.1%로 증가하고, 생각해 본적 없다고 답한 주민이 19.8%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6] 체제유지



나. 북한 경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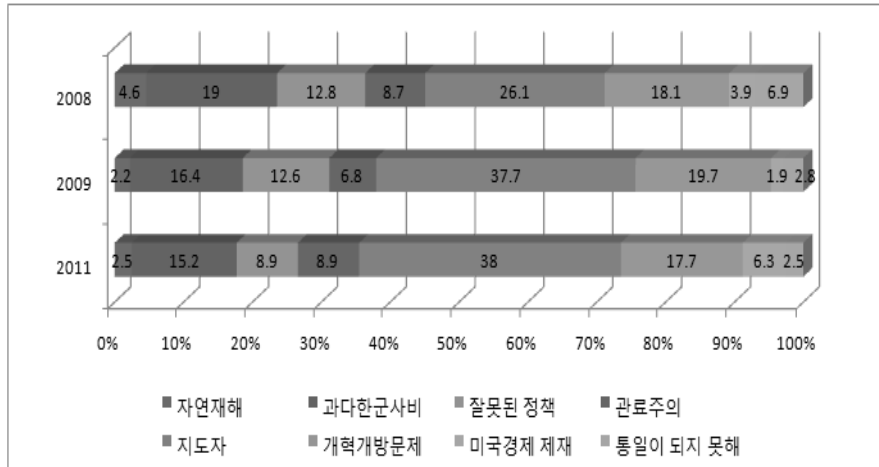
1) 경제난 원인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2008년 지도자 때문이라고 답한 주민이 26.1%, 과도한 군사비 사용 때문이라고 답한 주민이 19%, 개혁개방문제라고 답한 주민이 18.1%,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주민이 12.8%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답변이 37.7%, 개혁개방문제라고 답한 주민이 19.7%,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고 답한 주민이 16.4%,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주민이 12.6%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답변이 38%, 개혁개방문제라고 답한 주민이 17.7%,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고 답한 주민이 15.2%,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주민이 8.9%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개혁개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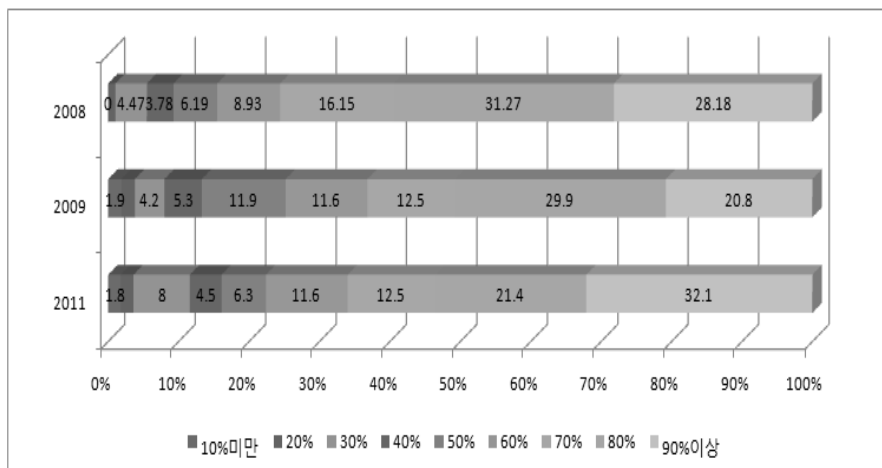
[그림 1-7] 경제난 원인



2) 장사여부

북한 주민들의 장사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50%이상 장사를 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2008년에는 83.9%로, 2009년에는 86.7%로, 2011년에는 90.7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장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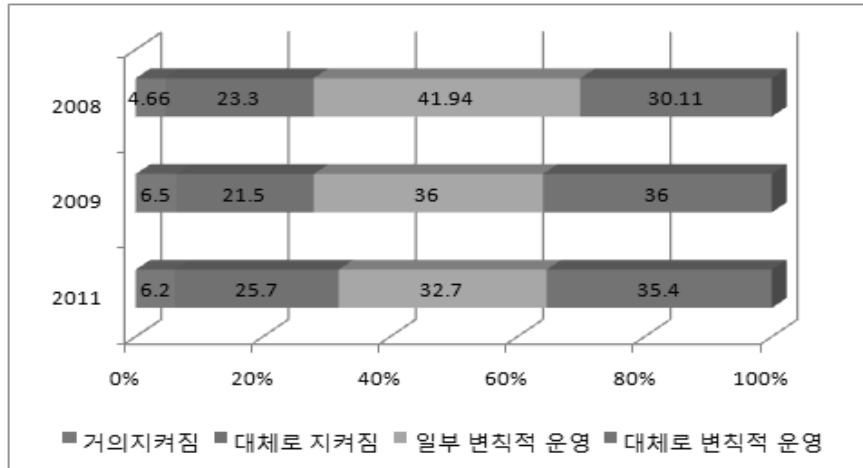
3) 생산규율

생산규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의 경우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41.94%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변칙적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30.11%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지켜짐이라고 답한 주민은 23.3%로 나타났으며,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4.66%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일부 변칙적 운영 및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각각 36%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21.5%로 나타났으며, 거의 지켜진다고 답한 주민은 6.5%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35.4%로,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32.7%로,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25.7%로,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생산규율의 경우에 상관없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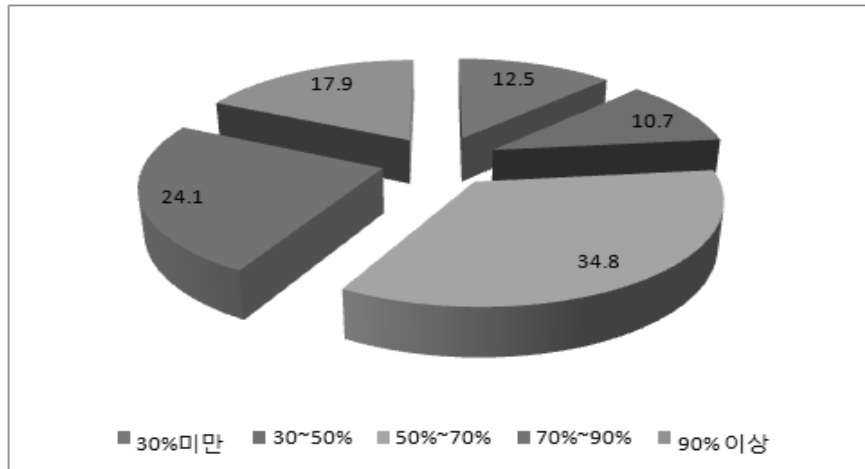
[그림 1-9] 생산규율



4) 생활총화 출석

생활총화 출석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50~70%라고 답한 주민이 34.8%, 70~90%라고 답한 주민이 24.1%, 90%이상이라고 답한 주민이 17.9%, 30%미만이라고 답한 주민이 12.5%, 30~50%라고 답한 주민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0] 생활총화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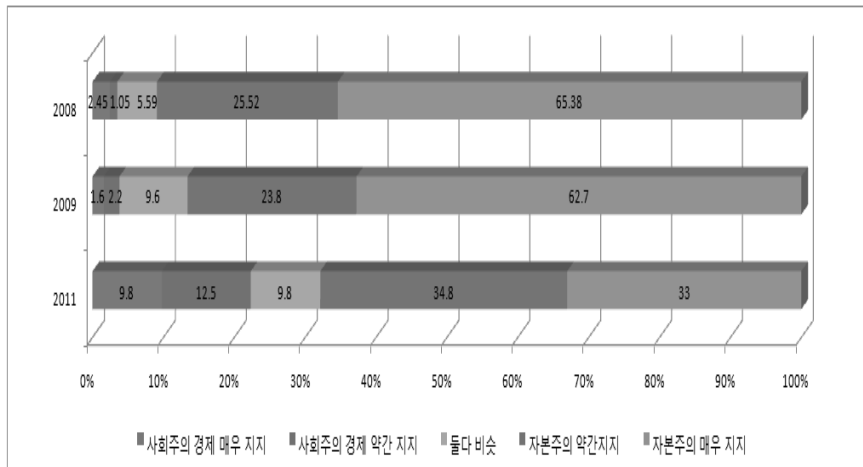


5) 경제체제 지지

북한 주민의 선호하는 경제체제를 살펴보면 2008년 자본주의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65.38%, 자본주의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25.52%, 둘다 지지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답한 주민은 5.59%,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2.45%,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자본주의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62.7%, 자본주의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23.8%, 둘다 지지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답한 주민은 9.6%,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1.6%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1년에는 자본주의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34.8%, 자본주의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33%,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약간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은 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주민과 둘다 지지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답한 주민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경향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1] 경제체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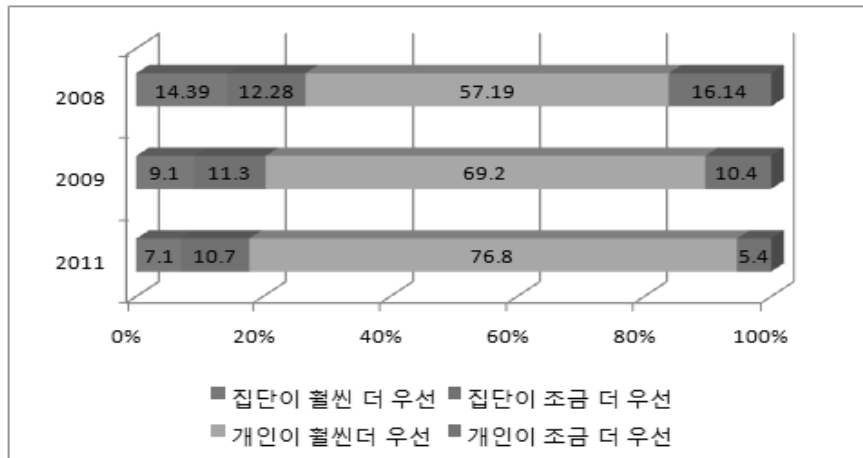
다. 개인 생활변화에 대한 태도

1) 개인 및 집단의식

개인 생활 변화에 따른 개인 및 집단의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2008년 개인이 훨씬더 우선한다고 답한 주민은 57.19%, 개인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6.14%, 집단이 훨씬 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4.39%, 집단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2.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주민이 약 25.6%로 나타났으며, 2009년 개인이 훨씬더 우선한다고 답한 주민은 69.2%, 집단이 훨씬 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1.3%, 개인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0.4%, 집단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주민이 약 20.4%로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개인이 훨씬더 우선한다고 답한 주민은 76.8%, 집단이 훨씬 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10.7%, 집단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9.1%, 개인이 조금더 우선 한다고 답한 주민은 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주민이 약 17.8%로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의식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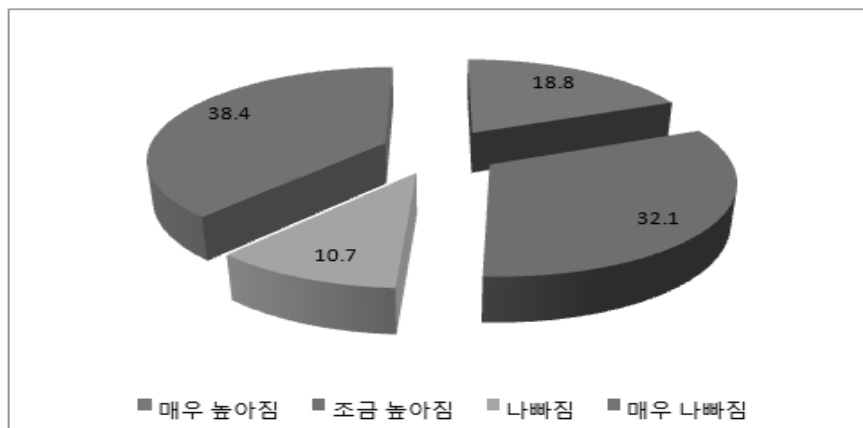
[그림 1-12] 개인, 집단의식



2) 생활수준변화

2011년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변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나빠졌다고 답한 주민은 38.4%, 조금 높아졌다고 답한 주민은 32.1%, 매우 높아졌다고 답한 주민은 18.8%, 나빠졌다고 답한 주민은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민의 생활수준 변화에 있어서 크게 높아졌다는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3] 생활수준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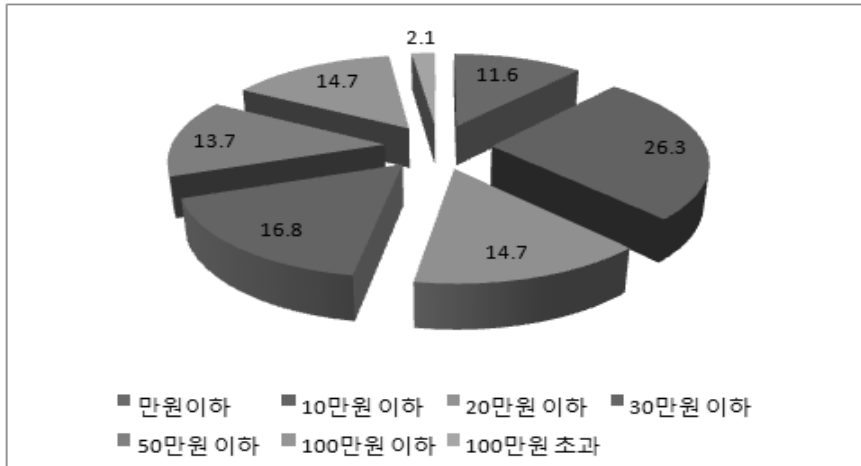
3) 걱정 월소득

2011년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걱정 월소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10만원 이하 라고 답한 주민은 26.3%, 30만원 이하라고 답한 주민은 16.7%, 2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라고 답한 주민은 각각 14.7%, 50만원 이하라고 답한 주민은 13.7%, 만원 이하라고 답한



주민은 11.6%, 100만원 초과라고 답한 주민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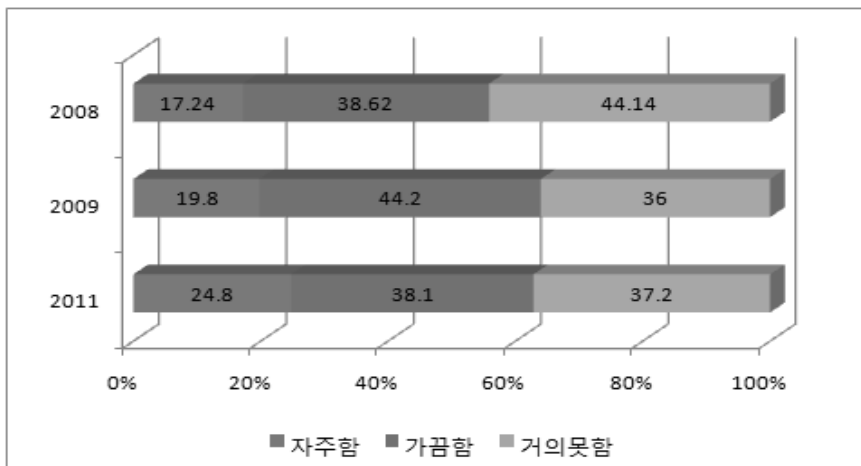
[그림 1-14] 적정 월소득



4) 국내여행

국내여행을 다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08년 거의 못하였다고 답한 주민은 44.14%, 가끔한다고 답한 주민은 38.62%, 자주한다고 답한 주민은 17.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가끔한다고 답한 주민은 44.2%, 거의 못하였다고 답한 주민은 36%, 자주한다고 답한 주민은 19.8%로 지난해에 비해 국내여행을 다니는 주민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011년에는 가끔한다고 답한 주민이 38.1%, 거의 못한다고 답한 주민이 37.2%, 자주한다고 답한 주민이 24.8%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국내여행을 자주 한다는 주민이 더욱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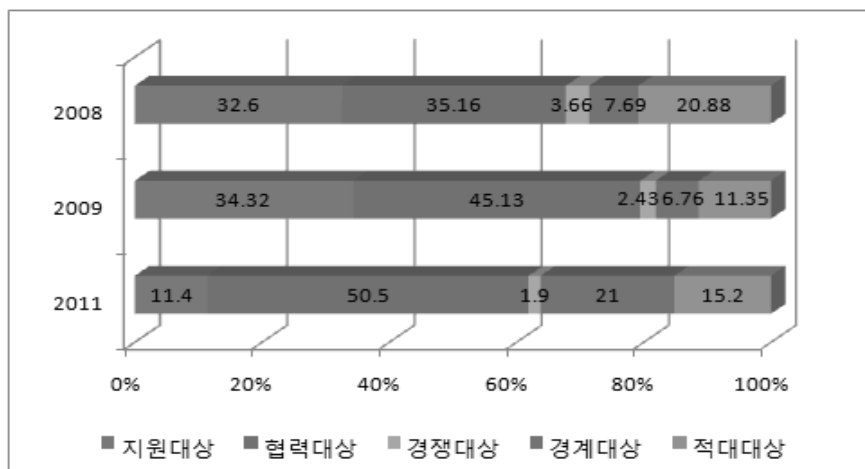
<그림1-15> 국내여행



3. 대남인식

가. 대남 존재인식

2008년 조사에 이어 2011년 사이 4년 동안 남북한 관계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일단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원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2008년 32.6%, 2009년 34.32%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11.4%로 급격히 낮아졌다. 또한 협력대상으로 답한 사람은 2008년 35.16%, 2009년 45.13%, 2011년에는 50.5%로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과거에 지원대상이라는 인식보다는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반면 경계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2008년 7.69%, 2009년 6.76%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21%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 20.88%의 주민이 적대대상으로 대답하였으나, 2009년 11.35%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에 들어 15.2%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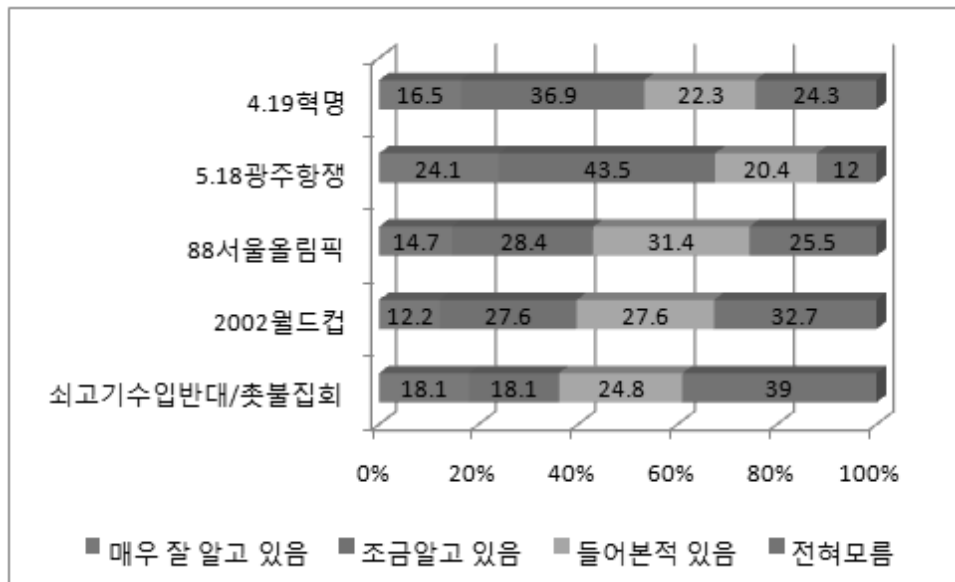
나. 대남현실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의 남한 현대사 주요사건에 대한 인식정도를 2011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최근 사건에 대해 점점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4.19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16.5%, 조금 알고 있다는 36.9%, 들어본적 있다는 22.3%, 전혀 모른다는 24.3%로 나타났으며, 5.18광주항쟁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24.1%, 조금알고 있다는 43.5%, 들어본적 있다는 20.4%, 전혀 모른다는 12%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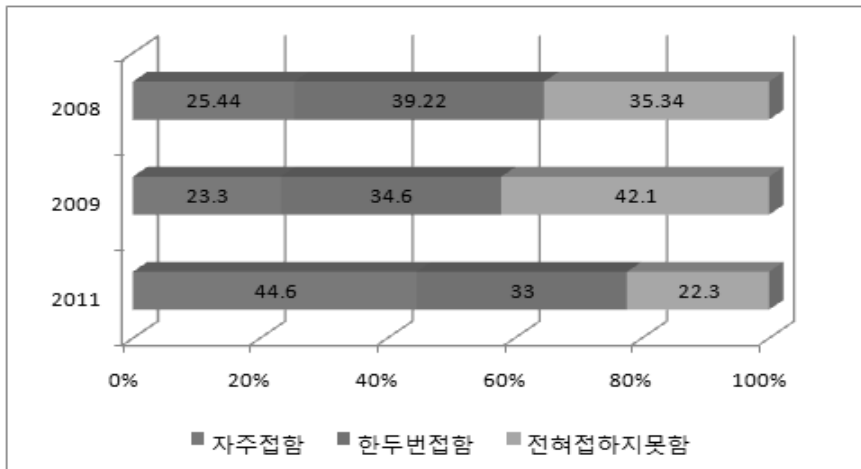
났으며, 88서울올림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14.7%, 조금알고 있다는 28.4%, 들어본적 있다는 31.4%, 전혀 모른다는 25.5%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는 반면에 2002년 월드컵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12.2%, 조금 알고 있다는 27.6%, 들어본적 있다는 27.6%, 전혀모른다는 32.7%로 나타났으며, 쇠고기수입반대/춧불 집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18.1%, 조금알고 있다는 18.1%, 들어본적 있다는 24.8%, 전혀 모른다는 39%로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남북한 간의 접촉 경험과 친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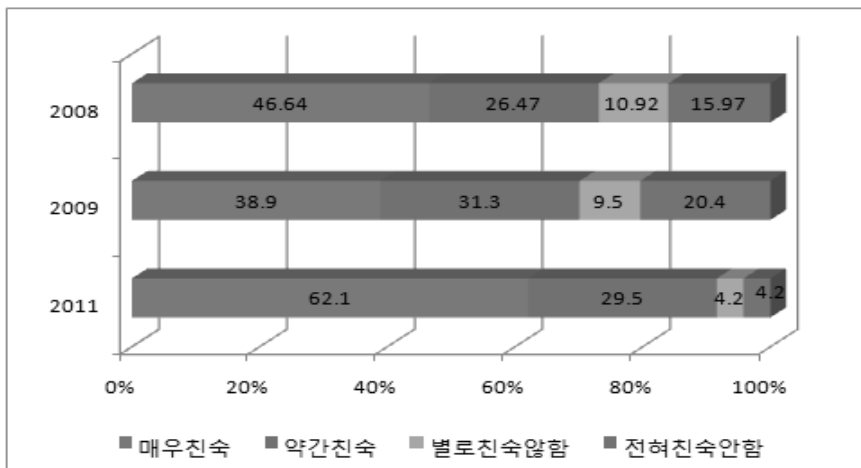
남한 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남한문화접촉정도를 살펴본 결과 2008년 자주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25.44%, 한두번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39.22%, 전혀접하지 못한다고 답한 주민은 35.34%로 나타났으며, 2009년 자주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23.3%, 한두번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34.6%, 전혀접하지 못한다고 답한 주민은 42.1%로 남한 문화에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2011년 자주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44.6%, 한두번접한다고 답한 주민은 33%, 전혀접하지 못한다고 답한 주민은 22.3%로 남한문화를 급속도로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한 문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남한문화접촉여부



이에 따른 남한 문화접촉시 느껴지는 친숙도를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2008년 매우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46.64%, 약간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26.47%, 별로 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10.92%, 전혀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15.97%로 나타났으며, 2009년 매우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38.9%, 약간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31.3%, 별로 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9.5%, 전혀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20.4%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2011년에는 매우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62.1%, 약간친숙하다고 답한 주민은 29.5%, 별로 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4.2%, 전혀친숙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4.2%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남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남한문화접촉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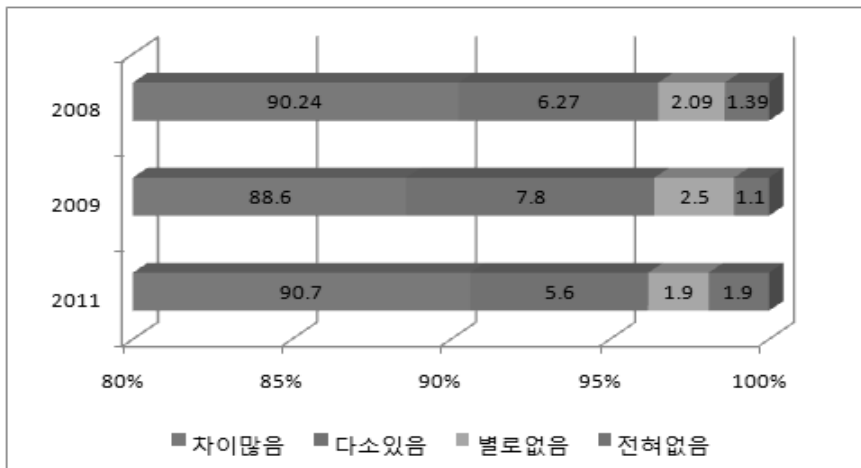


라.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1) 선거방식

남북한 사회분야별 차이에 따른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선거방식에 대한 차이에 관해서는 2008년, 2009년, 2011년 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거방식에 따른 차이에 관하여 2008년에는 90.24%, 2009년에는 88.6%, 2011년에는 90.7%로 남북한 선거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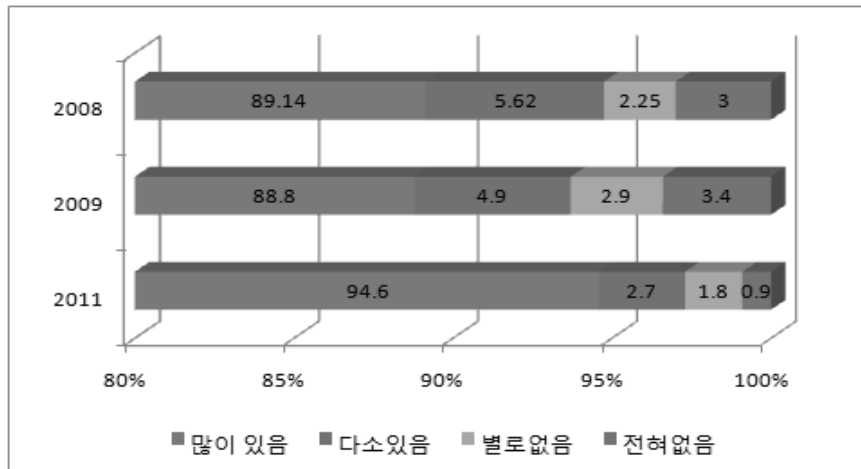
[그림] 선거방식



2) 생활수준

남북한 생활수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2008년, 2009년의 경우 생활수준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답한 주민은 89.14%와 88.8%로, 다소 생활수준 차이가 난다고 답한 주민은 5.62%와 4.9%로, 별로 없다고 답한 주민은 2.25%와 4.9%로,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한 주민은 3.0%와 3.4%로 생활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2011년에 들어서 생활수준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답한 주민이 94.6%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이유는 남한의 문화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차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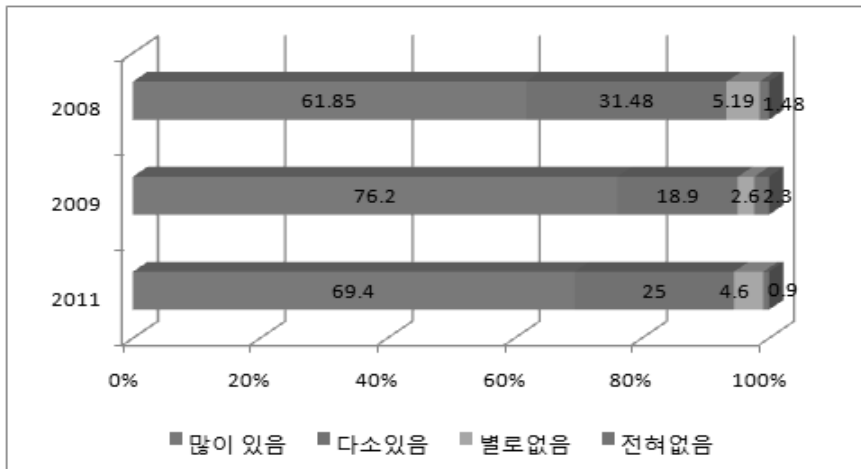


3) 언어사용

남북한 주민간의 언어사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언어사용에 있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간의 언어사용에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2008년 언어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61.85%,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31.48%, 별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5.19%,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1.48%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언어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76.2%,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18.9%, 별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2.6%,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2.3%로 2008년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들어 언어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69.4%,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25%, 별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4.6%,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은 0.9%로 언어사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문화 접촉이 늘어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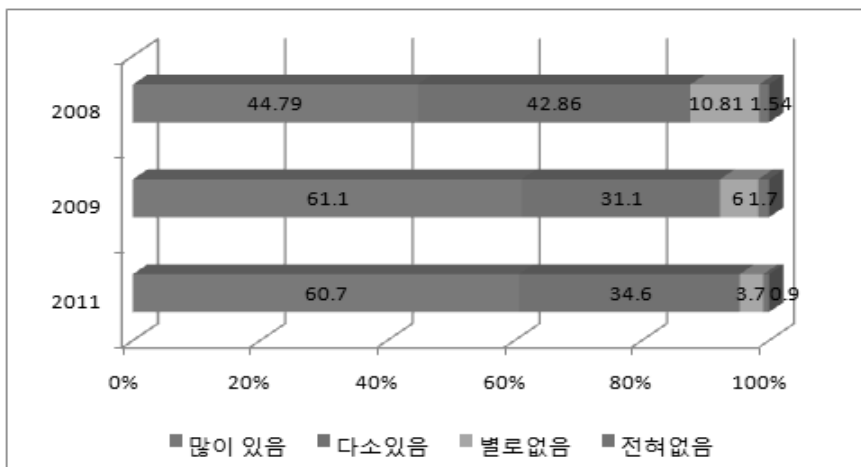
[그림] 언어사용



4) 생활풍습

생활풍습에 대한 남한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점차적으로 생활풍습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생활풍습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답한 주민은 44.79%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42.86%로 나타났으나, 2009년과 2011년에는 61.1%와 60.7%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31.1%와 34.6%로 생활풍습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생활풍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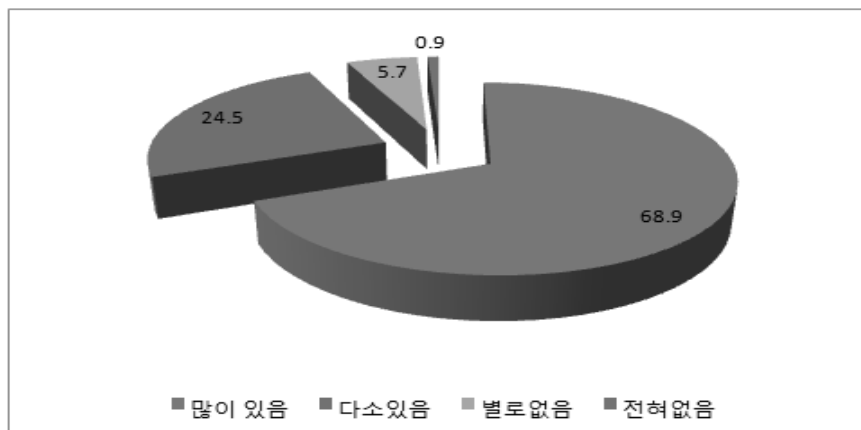




5) 역사인식

남한과의 역사 인식에 대해 2011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68.9%,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24.5%, 별로 없다고 답한 주민은 5.7%, 전혀 차이가 없다는 0.9%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분단이후 많은 역사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로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큰 차이를 보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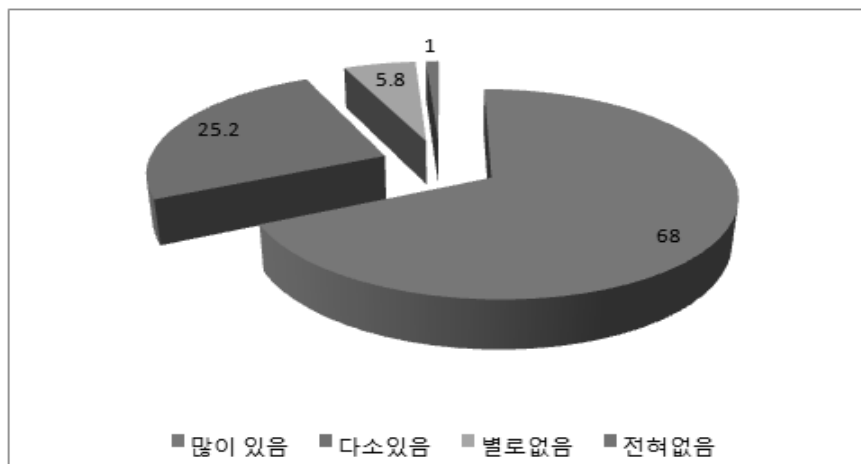
[그림] 역사인식



6) 가치관

또한 가치관에 차이에 대한 태도는 2011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이 68%,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한 주민인 25.2%, 별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이 5.8%,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주민이 1%로 나타났다.

[그림]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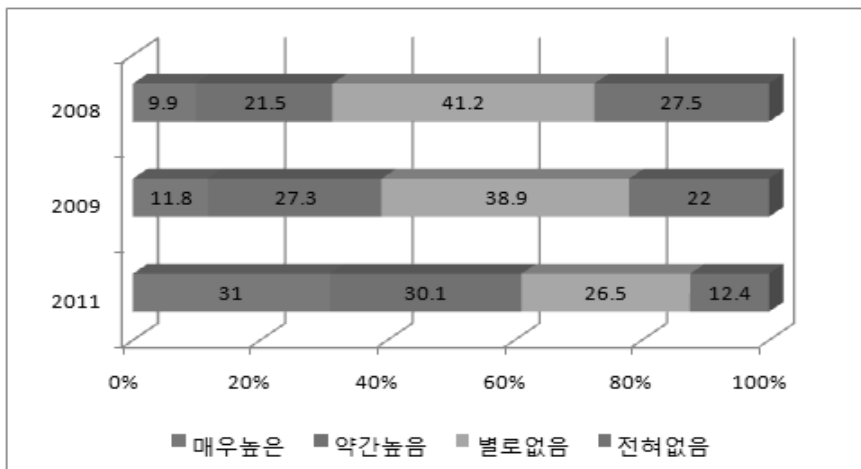


마.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무력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변한 주민은 41.2%, 전혀 도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주민은 27.5%, 약간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주민은 21.5%,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주민은 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반면에 2011년에는 약간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주민은 30.1%,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주민은 31%, 무력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변한 주민은 26.5%, 전혀 도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주민은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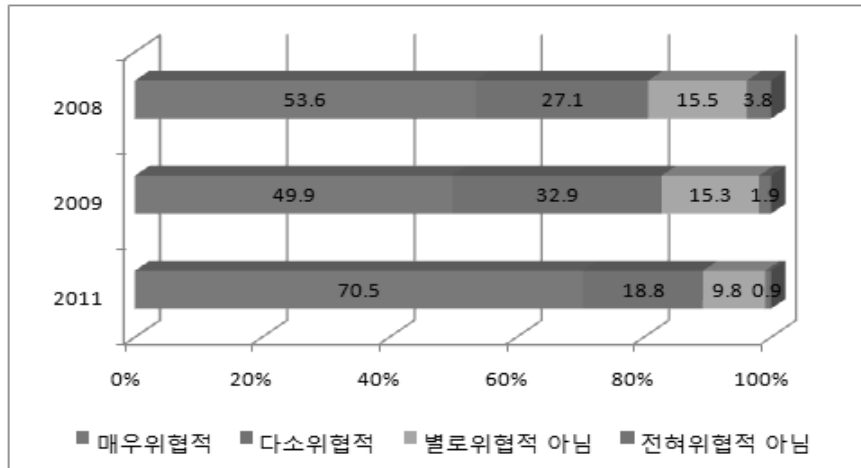
2) 북핵위험

또한 북핵위험에 관한 주민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53.6%, 다소 위협적으로 27.1%,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15.5%, 전혀위협적 아니라고 답한 주민은 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49.9%, 다소 위협적으로 32.9%,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15.3%,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70.5%, 다



소 위협적으로 18.8%,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9.8%,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주민은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경우도 북핵의 위협성을 매우 느끼고 있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북핵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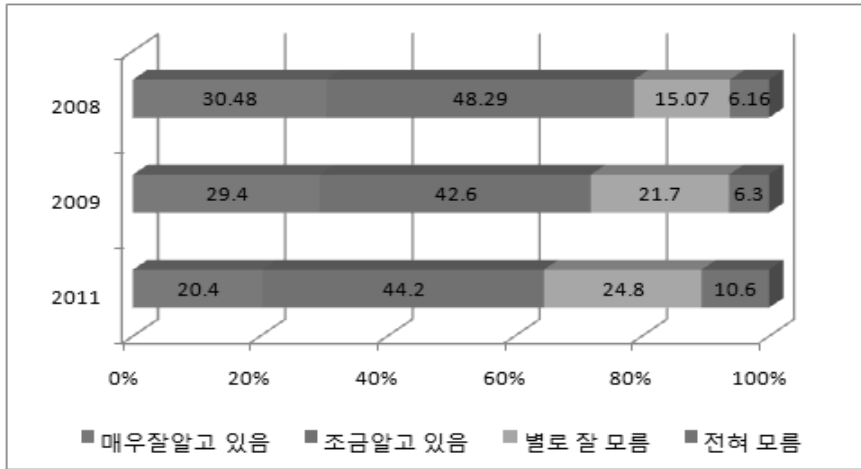
바.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

1) 대북지원 인지 정도

대북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북지원에 대해 조금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48.29%,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30.48%, 별로 잘 모른다고 답한 주민은 15.07,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6.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대북지원에 대해 조금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42.6%,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29.4%, 별로 잘 모른다고 답한 주민은 21.7,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대북지원에 대해 조금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44.2%, 별로 잘 모른다고 답한 주민은 24.8,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20.4%,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한 주민은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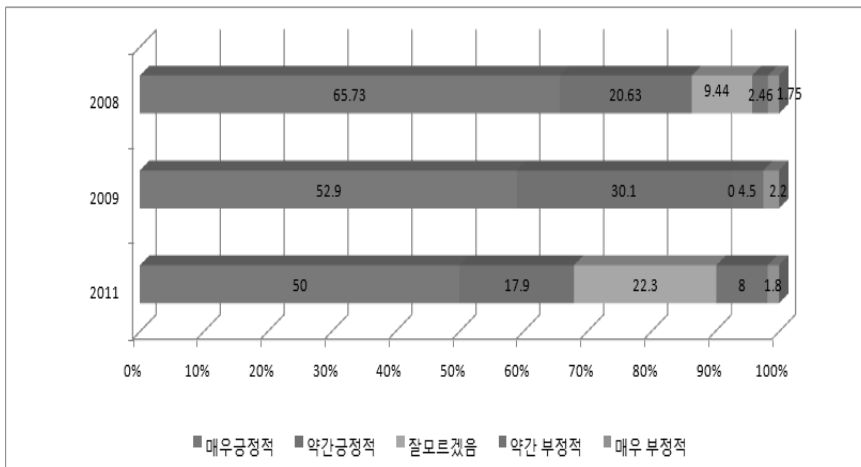
[그림] 대북지원 인지 정도



2)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2008년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65.73%,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20.63%, 잘모르겠다고 답한 주민은 9.44%,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2.46%,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52.9%,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30.1%,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4.5%,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2.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주민은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에 들어 대북지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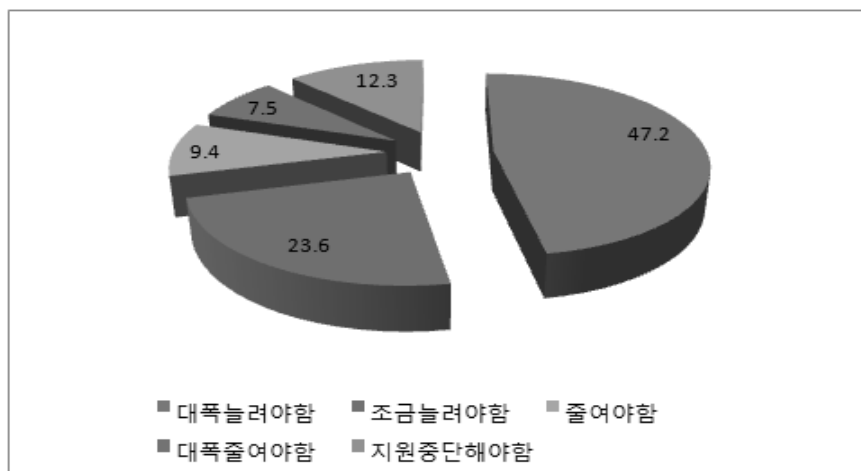
[그림]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3) 대북지원 규모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대폭늘려야 한다라고 답한 주민은 47.2%, 조금 늘려야 한다라고 답한 주민은 23.6%, 지원중단해야 한다라고 답한 주민은 12.3%, 줄여야 한다라고 답한 주민은 9.4%, 대폭줄여야 한다라고 답한 주민은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대북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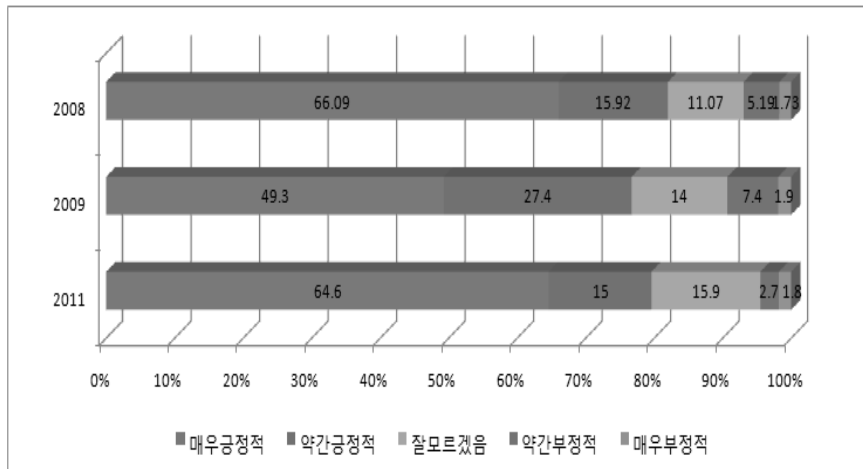


4) 경제투자인식

또한 경제투자에 대한 주민 인식을 살펴보면 2008년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66.09%,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5.92%, 잘모르겠다라고 답한 주민은 11.07%,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5.19%,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49.3%,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27.4%, 잘모르겠다라고 답한 주민은 14%,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7.4%,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경제투자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2011년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64.6%, 잘모르겠다라고 답한 주민은 15.9%,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5%,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2.7%,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경제투자인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경제투자인식



4. 결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 6월에 실시한 새터민 인식조사를 통해 북한사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주민 생활수준이 양적 차이에서 질적 차이로 변화 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북한사회의 생활수준이 고난의 행군시기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 ‘생활수준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49.1%, ‘생활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응답은 50.9%로 양측으로 나뉘어진 것에도 잘 반영되어있다. 현재 장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주민들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비관행위가 증가하며 공안기관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실태는 집단주의 의식이 조금씩 와해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유형의 응답과는 달리 북한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또한 특징적인 점은 경제체제 지지도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이 2008년(2.45%)와 2009년(1.6%)에 비해 9.8%로 급증하였고 “약간 지지한다”는 응답은 1.05%와 2.2%에서 12.5%로 큰 폭 상승한 반면, 자본주의 경제를 “매우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65.38%와 62.7%에서 33%로 급감하였다. 이는 권력세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08년(9.5%)과 09년



(8.9%)에서 11년(20.3%)로 급상승한 점과 일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2009년에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전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조직적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꽃 축제를 비롯한 화폐 교환을 통해 빈곤층 주민들을 감동시켰고¹⁾, 2010년 9월에는 후계자의 공식등장과 함께 권력세습을 정당화 하는 상징조작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사회인지도 형성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경험보다 공식 매체와 집단교육 및 감화교육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결과 우선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존재 인식에서 특징적인 점은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약간 증가하면서 “경계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현상을 의미한다. 물론 남한문화의 접촉경험이 확산되고 친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문화접촉과 친숙성은 북한의 반복되고 있는 대남 재교육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남 “경계인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이다. 2010년 1월의 김태영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3월의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사건 등은 북한의 대남 경계인식을 반영한 사건들이라 하겠다.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1) 2010년 8월에 탈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거주 김00는 2009년 12월 화폐교환 이후, 국가에서 1인당 신화폐 500원을 지급 했는데 4인 가족이기 때문에 2000원을 받았다고 증언함. 그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보니 시장의 물가가 폭등하여 생활이 더 어려워졌으나 그 당시의 환경은 북한이 1946년 3월 5일에 실시했던 토지개혁을 연상시켰고 그 만큼 감격했다고 하였다. (2011년 6월 인터뷰)





2부 :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남북관계

토론

- 김근식 (경남대)
-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재단)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 윤인진 (고려대)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최진욱 (통일연구원)
- 김병로 (IPUS)





[토론 1]

새터민 의식 조사 결과의 함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1. 의식 조사의 한계

- 2008-2011년의 연속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해서 시계열적 연속성의 담보가 부족함
- 2008년, 2009년의 문항과 2011년의 문항이 변화함으로써 설문내용에서도 연속성의 담보가 부족함
- 설문대상자도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그 숫자가 반이상으로 줄어있음
- 시간적 연속성과 내용적 연속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
- 새터민의 의식조사는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변화 실태, 남한적응 실태 등에서 나름의 의미있는 내용과 결과를 제공하는 데 비해, 새터민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취약해 보임

2. 새터민의 통일인식

- 통일시기를 10년 이내로 보는 응답층이 가장 많은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도 20% 내외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북에서 살다가 남쪽에 와서 사는 새터민의 입장에서 통일이 미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함
- 남북의 차별, 남북의 해소되지 않는 차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북한의 변화 무망 등 아마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새터민이 통일 불가능이라는 절망적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임

- 통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통일 이후에도 ‘지역갈등이 악화될 것’(35.7%)이라거나 통일 이후 지역평등에 대해 여전히 남쪽주민이 대우받을 것(17.8%, 16.8%)이라는 응답에서 잘 드러남.
- 통일 이후 거주지역에서도 남한이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응답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16-)26-)28.3)

3. 북한 변화 실태 인식

- 예상과 달리 새터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체제가 그런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권력세습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층이 오히려 줄어들고 긍정적 응답층이 늘어나고 있음
- 북한체제 붕괴 전망에 대해서도 5-10년 내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급감한 반면, 30년 이상을 전망하는 응답층은 증가했음
-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층이 줄고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대답한 사람들이 늘었음
- 북한변화 실태에 대한 새터민의 응답에서 흥미로운 점은 북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체제의 유지와 권력세습의 긍정성에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점임
- 이는 북에서 탈출한 그들의 의식을 감안한다면 북한 내부 구성원의 체제 내구력이나 사회 통합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임
- 이같은 결과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북한 붕괴 대망론’이나 ‘급변사태 임박론’의 위험성과 편향성을 지적해야 할 것임
- 특히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2011년 급증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지난 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겪으면서 남북 대결 상황에서 새터민들은 자칫 남한의 무력도발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음



[토론 2]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과 설문조사

-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상당히 많은 경험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함.
 - 특히 올해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대형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례비도 매우 다양하게 지급하는 양태가 벌어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설문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됨.
 -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양한 조사에 노출되어 조사 피로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함.

- 조사방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
 - 조사원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함.
 - 나아가 조사기관, 조사 장소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

- 결과분석은 다른 조사와 비교 분석하고, 특히 남한의 일반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요구함.
 - 비교분석할 경우, 이번 조사와 같이 지난번 조사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타 기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등중학교 출신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면, 남한의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임.



■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실시해야 비교할 경우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2008년과 2009년 하나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 2010년에는 미실시, 올해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궁금함.
 - ※ 2011년의 의식조사는 기존 2년(2008~2009)간 수행한 탈북자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음(p.1)
- 표본의 수도 차이가 큼. 특히 2009년도 1/3 수준이어서 모집단의 성격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10-2011년 입국자 대상으로 '국내적응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 보통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한지 3년 정도 경과하여야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착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함.
 - 특히 2011년도 입국자에 대한 조사는 그 현황과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두고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주 지역에서의 1년도 사실상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경제실태, 사회적 연결망 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임.

■ 분석과 관련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만 제시되고 있는데, 보다 풍부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봄.
- 물론 2011년 조사는 표본수가 적어서 연령대와 성별로 구분하기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변수들을 다양화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임. <송영훈 연구원 p.2>
- 가족 동반과 혼자 입국한 경우도 '통일의식'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지? <정일미 연구원 pp.3-4>
- 최근 입국자의 특징은 여성이 다수(2-40대가 비율 높음, 올해는 남성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 가족동반 증대(이미 입국한 가족 포함), 탈북하여 입국하는 시기 단축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통일사회에 대한 기대 인식

-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대 및 갈등 양상이 달라질 것임.
-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남한이 주도하고,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상정하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무리는 아니라고 봄.
- 통일되는 시점<10년이내>에 ‘복지’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 ‘실업문제’에 본문에서와 같이 <p. 6> 관심이 높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움.
- 지역갈등도 정치형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것임. 예를 들어 올 해 초 통일연구원의 『통일비전개발』에서 ‘다연방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대북정책별 기여도

-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응답하였는지 궁금함. <p. 8>
- 남북관계에서 어떤 경우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가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

○ 남북한 주민의 화합

- 본 조사결과가 지속된다면 ‘주민화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좌절과 시선을 경험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남한에서의 자아인식

- ‘나는 남한사람이다’라는 응답 72.8%, ‘나는 북한사람이다’라는 응답 21.9% 였는데,
※ 북한 출신 남한사람으로 보는 사람(50.6%), 남한사람(24.9%), 북한사람(15.3%), 동포(9.2%)의 順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년 패널조사]



○ 근로활동

- 표 14와 15를 비교해 보면, 정규직이 26.2%인데, 100만원 초과 19.3%는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임.

※ p. 15. 2010년 경제활동인구 45.3%, 2011년 58.8%로 나타난 것은 의외임.

p. 17, 20일 이상 근로하면서 월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

- 2010년 재단 패널조사에서 입국기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3년 미만 103 5천원, 3-5년 114만 7천원, 5년 이상 150만 1천원

■ 향후 조사와 관련하여

- 2008년, 2009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교 분석하는데 용이하고, 유의미 할 것으로 보임.

- 조사원의 철저한 교육,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pretest, 이해하기 쉬운 문항 구성 등이 요구됨.

- 특히 대상에 설문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토론 3]

남한사회 적응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새터민들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굴러온 돌’이다. 혹은 ‘옳겨 심은 화분’이라는 표현은 어떤가. 자연 적응에 어려움이 많기 마련이며 본 논문은 그 계량적 수치와 결과들을 비교적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낮설고 물설다’는 말이 있듯 북한을 떠난 새터민들은 언어와 관습이 동일하다는 민족동질성의 큰 테두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생소한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남한 주민들이 새터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보다 새터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 더 크다는 조사결과는 정확한 것이지만 처량하기도 하다. 못사는 흥부네 식구들이 잘 사는 놀부네 집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가난한 흥부네 식구들은 놀부네 식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 남한 국민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물론 남한 사람들이 놀부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부자라는 측면에서 생활수준을 표현한 것이므로 오해 없기 바란다.

얼마 전에 한 제자를 데리고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가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그는 여학생으로 현재 대학 3학년인데 등록금이 모자라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함께 갔는데 타워팰리스를 일부 구경시켜 주었더니 “박사님! 여기 와 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이 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연 저도 이런 곳에서 살아볼 날이 올까요?” 괜히 보여주었다는 후회도 들지만 그 학생의 비전은 커졌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위로로 남았다.

남한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또 다른 의식을 관찰해 보면 가난한 계층보다는 부유계층이 동정적인 측면인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곤 하였다. 가난한 계층은 마치 탈북자들이 이 나라 복지의 일부를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떼어주는 것으로 여기는지 막연하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통일의식에서 보면 부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느꼈다. 한 마디로 부유계층은 소수인 탈북자들에게 약간의 자비는 베풀어도 북한 주민 모두를 구제해야 한다는 통일비용에서 큰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탈북자들의 외식에 주목하는 것은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처음 미국이나 기타 서양 나라에 간 사람들은 그 곳 주민들이 아침에 만나면 어김없이 “굿 모닝!”하는데 이것을 단지 인사성으로 받아들이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자신의 보호의 식으로부터 나오는 보호본능적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된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탈북자들은 처음 이 땅에 오면 약간의 환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대는 자칫 ‘환멸’로 바뀌기 쉽다. 왜? 차이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탈북자는 낙오자가 되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탈북자도 적지 않다. 이민과 역이민처럼 탈북자의 행동반경은 단순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역탈북’은 분명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취업결과가 말해주듯 남한에 와 좋은 직장을 가진 탈북자들은 ‘적응’이나 뭐니 하는 용어와 무관하게 잘살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 하층민으로 살던 탈북자들은 여기 와서도 하층민이다. 하루아침에 신분상승은 일어날 수 없는 법이다. 사실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말들이 탈북자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 땅에 와 북한에서 바라던 소망의 최고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까지 억제하라고 할 수는 없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미래를 꿈꾸는 탈북가정은 행복하다. 하지만 나이 먹어 온 처녀들, 홀로 온 과부들과 이혼녀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사회적 흡수성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의 초점은 이들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탈북 소외계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험계층’을 양산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탈북자들은 종교와 종교시설, 종교인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남한의 종교는 탈북자들에게 관대하며 행동으로 봉사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대안에 대해 살펴보자. 앞으로 탈북자 수가 증가할수록 적응문제는 더 커



질 수 있다. 정부의 예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탈북자들은 냉정하게 이주민이다. 이주 행렬은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을 동포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북한에 주는 반면교사가 매우 부정적이란 점을 중시해야 한다.

환영은 못해주어도 그들이 환멸을 크게 느끼지 않게 해 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종교적 포용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남한의 중요 종교는 탈북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력, 자금, 나아가 인적 자원까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김만철 일가족이 모두 몰려간 강남의 광림교회는 모든 교회의 부러움을 샀다. 마치 예수가 재림한 것처럼 환영하던 교인들이 오늘날 김만철 일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 무관심하다.

군이 관심을 둘 이유도 없지만 이렇듯 일회성 환영은 이제 교회군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김정일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를 ‘탈북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해로 정했다. 인식개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대학 통일평화연구소의 설문조사와 발표모임은 시의적절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음을 모두 인정한 토대위에서 탈북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통일의 길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토론 4]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통일평화연구원의 새터민 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일의식, 대남의식, 북한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충분히 수궁이 가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 표본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각 연도에 실시한 의식조사의 표본이 비교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위의 두 조건이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탈주민 표본을 통한 북한주민의 의식과 생활실태의 변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체의 의식과 적응실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 문제가 많은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의식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북한에서 중하류층에 속했고, 출신 성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닫힌 사람들이어서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결국 그런 상황으로 인해 탈북을 하게 됐고 탈북과 남한사회 적응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의식이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주민에 대해 유추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의식조사를 각 연도에 실시해서 통일의식, 대남의식, 북한실태, 적응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매 년도의 표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집되었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방법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 조사 개요에서 2011년의 표본 중에 소위 '직통 탈북자'가 대부분이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이전 표본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배경특성의 차이가 연도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도별 차이는 북한주민이나 북한실태의 변화가 아니라 표본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새터민의식조사의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국 규모의 확률 표본에 기초를 둔 타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연구원의 2005년과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조사에서는 남한주민의 통일의식, 대북의식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재단이 2010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과 남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만일 새터민의식조사의 결과가 타 의식조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식, 북한과 남한에 대한 평가, 적응실태 등에 관한 응답 결과를 해석할 때 사회적 선망 효과(social desirability bias)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의 탈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북한을 부정하고 남한을 긍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간의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특별히 클 수 있다. 그렇게 한국과 한국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이 싫다고, 한국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영국, 미국 등으로 재이주하는 실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응답결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터민의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인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남한주민이라는 점에, 반면 남한주민은 이들을 북한주민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조사결과는 필자가 2010년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했다. (조사결과는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출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인식』에 보고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남한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남한주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인정의 투쟁’을 북한이탈주민이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론 5]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토론 6]

최진욱 (통일연구원)



[토론 기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북한경제 실태에 대한 궁금증

북한주민들의 의식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경제실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양측의 평가가 실제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의미 있는 조사이며, 귀를 기울여볼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협력 효과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내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경협효과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큰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북중경협이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중국효과가 아니라면 북한 내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많은 믿기 어렵다. 북한이 CNC화, 150일전투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심이 든다. 현재 환율이 3,000원으로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활성화가 내부 생산력 향상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가 일부지역과 계층에서 호황을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까 궁금하다.

2. 북한의 대남인식과 통일준비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경계대상, 적대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높아졌다. 이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통일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주민의 민심잡기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선호하고 열망하였듯이,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통일의 미래로 열망하고 호감을 가져야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텐데, 통일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에 역행하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통일준비 사업이 한창인데, 통일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통제는 악화되고 있고 정치적 불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간 이동이 통제된 북한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유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한의 문화(방송, 드라마) 접해봤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북한에서도 정보화가 부분적으로 진행중이고 인적 왕래와 문화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간에 문화적 통일이 먼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가 아직은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보화의 진전과 인적 왕래의 증가, 북중경제협력의 증대 등이 가속화되면 노래와 영화, 드라마를 통한 남북한의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한류를 통한 민족의식의 형성 같은 문화적 통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